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3-10

2023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협업지원사업: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정민주 정책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손경민 연구원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근거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 특성 및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인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난방에너지 관련 정책의 만족도와 정책 수요에 대해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 모두 농어촌 지역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세부 항목에서도 대부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

의 질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 만족도'는 6.4점으로 도시 지역의 6.2점보다 높았으며, 두 지역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거주 지역의 발전 전망 관련 항목에서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0.1점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웰빙' 측면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농어촌 지역 주민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도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정서 개선 정도가 우세했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5.7점, 도시 지역의 5.4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에 있어서는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의 전체 평균 점수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전년도 대비 상승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5.6점으로 도시 지역의 6.3점보다 0.7점 낮아 전년도 도·농 간 격차인 1.1점(도시 6.4점, 농어촌 5.3점)에 비해 0.4점 개선되었다.

4대 부문 중에서 보건·복지 부문은 도·농간 격차가 전년 대비 0.3점 감소했으나, 여전히 1.4점으로 차이가 가장 컸고, 교육·문화 부문과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각각 0.6점, 0.9점으로 전년도와 같았다. 반면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0.2점 더 높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문 중에서 보건·복지 부문은 의료 서비스 관련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분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2.1점(도시 6.7점, 농어촌 4.6점)으로 가장 컸다.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각각 0.9점, 0.8점으로 여전히 두드러졌으며, '방과 후 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 격차 또한 0.8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신규 문항으로 추가된 '난방 인프라' 여건의 만족도 격차가 1.8점(도시 7.8점, 농어촌 6.0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난방 비용' 항목에서도 만족도 격차가 0.8점으로 난방 여건에 대한 도·농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교통' 만족도의 격차가 1.5점(도시 7.2점, 농어촌 5.7점), '생활 서비스' 및 '식자재 구매' 여건이 각각 1.3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른 부문과 달리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0.2점(도시 5.0점, 농어촌 5.2점) 더 높았다.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적절한 물가 수준’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지원’ 항목에서는 도시 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대 부문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 ‘필요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IPA 분석 결과,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중요도 6.8점)하고 있으나 만족도는 5.5점에 그쳐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부문에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36.1%, 도시 지역 주민의 50.5%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주민의 주된 이주 사유는 ‘직장이나 일자리(35.4%)’이고, 도시 주민은 ‘주택 문제(31.7%)’를 주요 사유로 꼽았다.

농어촌 주민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은 모든 부문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특히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가 5.0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하고(4.4점), 구직이 어렵다(4.7점)고 여기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경우 모든 부문에서 40대 이하 여성의 만족도가 저조했다. 특히 경제·일자리 부문 여건 중 구직 용이성 및 충분한 일자리 항목에서 40대 이하 남녀 간 격차가 0.9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 읍·면 지역 간 차이는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간 차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는 전년도와 같이 면 지역의 만족도가 읍 지역 주민보다 0.1점 더 높았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읍·면 간 격차는 정주기반 부문에서 가장 컸다. 그중에서도 ‘난방 인프라’ 항목에서 읍·

면 간 격차가 1.6점, '난방 비용'의 격차가 0.8점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의 난방 여건이 열악하다고 분석되었다.

2023년도 특별 문항으로 주민들의 난방 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 주민이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로 약 13.7만 원을 부담하는데 비해, 농어촌 주민은 약 17.1만 원을 부담하여 농어촌 주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2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비 부담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인식이 각각 0.2점, 0.2점, 0.7점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비 부담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농 간 차이(0.7점)보다 읍·면 간 차이(1.0점)는 더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도시(동) 지역과 읍 지역의 경우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 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난방비 부담이 가장 큰 면 지역의 경우 단열 성능 개선,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 등과 관련된 '주택 개선 사업'을 1순위로 답했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2

제2장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5
2. 조사 항목 7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1

제3장 도시·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13
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별 만족도 20
3.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30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및 정주 여건 분석

1.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33
2.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38
3. 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 만족도 57
4.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 여건 62

제5장 결론

1. 조사 결과 요약 69
2. 시사점 72

부 록

1. 2023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표	75
2. 2021~2023년 도·농 정주 만족도 추이	83
3. 2023년 4대 부문별 시·도 지역 정주 만족도 점수	85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t-검정 결과	89
5.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t-검정 및 ANOVA 결과	92
참고문헌	119

제2장

〈표 2-1〉 2023년 조사 부문별 조사 문항 변경 사항 8
 〈표 2-2〉 2023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9
 〈표 2-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난방 여건 조사 문항 10
 〈표 2-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1
 〈표 2-5〉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12

제3장

〈표 3-1〉 최근 4년간 전반적 만족도 점수 비교 15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인식 변화 17
 〈표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9
 〈표 3-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21
 〈표 3-5〉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3
 〈표 3-6〉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4
 〈표 3-7〉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5
 〈표 3-8〉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26
 〈표 3-9〉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별 중요도 점수 27
 〈표 3-1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28
 〈표 3-11〉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30
 〈표 3-12〉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비교 32

제4장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역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부문 만족도 37
 〈표 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39
 〈표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40
 〈표 4-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42

〈표 4-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44
〈표 4-6〉 성별·연령별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45
〈표 4-7〉 성별·연령별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46
〈표 4-8〉 성별·연령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47
〈표 4-9〉 성별·연령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48
〈표 4-10〉 성별·직업별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49
〈표 4-11〉 성별·직업별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0
〈표 4-12〉 성별·직업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1
〈표 4-13〉 성별·직업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2
〈표 4-14〉 직업군별·연령별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3
〈표 4-15〉 직업군별·연령별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4
〈표 4-16〉 직업군별·연령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5
〈표 4-17〉 직업군별·연령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56
〈표 4-18〉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시·도별 만족도 비교	58
〈표 4-19〉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읍·면별 만족도 비교	59
〈표 4-20〉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60
〈표 4-21〉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60
〈표 4-22〉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61
〈표 4-23〉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61
〈표 4-24〉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연료	63
〈표 4-25〉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	64
〈표 4-26〉 읍 지역 및 면 지역의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	65
〈표 4-27〉 난방 여건 개선 관련 정책의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66
〈표 4-28〉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67

제2장

〈그림 2-1〉 조사 개요 6

제3장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14

〈그림 3-2〉 주관적 웰빙 만족도 조사 결과 16

〈그림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18

〈그림 3-4〉 4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20

〈그림 3-5〉 4대 부문별 도·농 만족도 점수 추이 22

〈그림 3-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29

〈그림 3-7〉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주 희망 주민 대상) 31

제4장

〈그림 4-1〉 시·도별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 평균 만족도 57

〈그림 4-2〉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거주 주택 유형 63

〈그림 4-3〉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67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동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기구로, 국무조정실 총괄 이하 21개 부처·청으로 구성된 범부처 조직이다.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수행하고 있다.

- 시행 초기인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 농촌 지역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4년부터는 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지역별 층화추출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 지역 주민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2021년부터는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와 아울러 삶의 질 정책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특정 주제별로 도·농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비정기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함께 조사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2.1.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한다.
 -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 등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연도별 추이를 확인한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부문별(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실태와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부문별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평가하는 정주 여건을 측정한다.

- 조사된 설문 문항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귀무가설¹⁾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 도·농간 만족도 점수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또한 4개 부문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비교·평가할 수 있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4대 부문별 현주소를 확인한다.
- 아울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이주 의향을 조사하고,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 특성별, 거주 지역별(읍·면, 시·도별)로 각 부문의 정주 여건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를 연령대, 직업, 성별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 여건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 거주하는 읍·면부에 따른 만족도, 시·도별 만족도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 간 정주 여건 실태를 비교한다.

2.2. 특정 정주 여건 비교 분석: 난방 여건 측면

○ 농어촌 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가하고, 해당 정책이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도록 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이다.

- 정책 주제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사업의 인지도 및 활용 정도,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주 만족도 조사와 병행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 귀무가설: 각 집단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각 집단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정책 과제는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과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난방 여건 관련 문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 난방 여건 관련 조사를 위해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연료비 부담 등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차이를 살펴보고,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본 조사는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²⁾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항³⁾에 따라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동 지역을 도시로 구분하여 응답자 표본을 추출했다.

- 도시 지역은 1,500명, 농어촌 지역은 2,500명을 할당할 것을 계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하였다.

-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4,100명이며, 그중 도시(동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1,597명, 농어촌(읍·면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2,503명이다.

²⁾ 전문 리서치업체에 위탁하여 온라인조사와 방문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³⁾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pm 1.53\%p$ 이다.

〈그림 2-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 수	→	▪ 4,100명(동 지역 1,597명, 읍·면 지역 2,503명)
표본 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53\%p$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표본 추출	→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 2023. 10. 18. ~ 2023. 11. 16.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 항목

- 정주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4대 부문별 만족도, 4대 부문별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을 조사하고, 비정기적으로 농어촌 영향평가 등 정주 여건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2.1.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 정주 만족도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조사 문항과 틀은 유지하되, 질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이슈를 반영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문항 중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와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세부적인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정주여건 부문 중 교통인프라, 통신인프라, 생활(환경)인프라 항목은 있으나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별도의 문항이 없어 신규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 경제·일자리 부문 중 정주 여건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내 물가수준’에 대한 문항이 없어 신규 문항으로 추가하였다.
- 세부 문항 중 2022년 농어촌 영향평가 등 별도의 목적에 의해 추가된 문항은 삭제하였다.
 - 보건·복지 부문 여건의 세부 문항에 ‘산후조리 서비스’와 ‘여성 출산 지원’ 2개 문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항목만 유지하였다.
- 이주 의향 관련 문항 중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의향 구체성을 판단하기 위해 ‘예상 이주시기’ 문항을 추가하였다.

○ 조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는 모든 문항은 2018년도 조사부터 동일하게 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였다.

〈표 2-1〉 2023년 조사 부문별 조사 문항 변경 사항

부문	문항	비고
전반적 만족도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 귀하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수정
정주기반	[에너지 인프라] 도시가스, LPG 등 난방(또는 에너지) 인프라가 양호하다.	신규 문항
경제·일자리	[지역내 물가] 지역내 생필품 물가수준이 적절하다.	
이주의향	[이주 의향](이주 의향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주할 생각입니까?	
보건·복지	[산후조리 서비스] 산후조리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 출산 지원] 출산 지원 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삭제

자료: 저자 작성.

○ 이를 종합한 조사 항목 구성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부문별 여건 만족도 등으로 〈표 2-2〉⁴⁾와 같다.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는 삶과 관련된 전반적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4) 〈부록 1〉의 ‘2023년 도시·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조사표’ 참조

〈표 2-2〉 2023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행복감 -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 마을 발전 전망 - 시·군 발전 전망 -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 어제의 행복 정도 -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 어제의 우울 정도 -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공동체 및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속감 - 이웃과의 관계 -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교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4대 부문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부문: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개 추진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부문별 정책 중요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개 부문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이주 의향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 및 시기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자료: 저자 작성.

2.2.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조사 문항

○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인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거주 주택 유형,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 등을 조사하여 난방비 지출 격차 원인을 파악했다. 또한 난방시설 노후화, 단열 성능, 연료비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 여건 실태를 조사하였다.

- 아울러 난방에너지 관련 정책의 만족도와 정책 방향 항목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표 2-3〉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난방 여건 조사 문항

구분	세부 항목
난방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용연료 및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 ○ 난방시설 노후화, 단열 부실, 연료비 부담 ○ 에너지 관련 정책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난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자료: 저자 작성.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주요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4>와 같다.

- 2023년 조사 응답자는 총 4,100명이며, 이중 도시 지역의 응답자는 39%(1,597명), 농어촌 지역의 응답자는 61%(2,503명)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 응답자가 842명(20.5%)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60대 응답자가 938명(22.9%)으로 가장 많았다

<표 2-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100	100.0	전체		4,100	100.0
도시·농어촌 구분	도시(동)	1,597	39.0	연령대	19~29세	590	14.4
	농어촌(읍·면)	2,503	61.0		30대	611	14.9
거주지역	서울	354	8.6		40대	728	17.8
	인천·경기	842	20.5		50대	857	20.9
	대전·충청	718	17.5		60대	938	22.9
	광주·전라	572	14.0		70대 이상	376	9.2
	대구·경북	571	13.9	혼인상태	기혼	2,846	69.4
	부산·울산·경남	744	18.1		미혼	1,254	30.6
	강원·제주	299	7.3	직업	농림어업	843	20.6
거주기간	10년 미만	1,577	38.5		자영업	310	7.6
	10~19년	874	21.3		사무·관리직	1,053	25.7
	20~29년	680	16.6		생산·기능·노무직	276	6.7
	30~39년	366	8.9		판매/영업직	103	2.5
	40년 이상	603	14.7		서비스직	188	4.6
성별	남성	2,200	53.7		전문/기술직	312	7.6
	여성	1,900	46.3	주부	394	9.6	
주택형태	단독주택	1,383	33.7	학생	152	3.7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	636	15.5	퇴직	152	3.7	
	아파트	1,992	48.6	무직/기타	317	7.7	
	비거주용건물	2	0.1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318	7.8
	기타	87	2.1		1,000만 원대	288	7.0
가구구성	독신 가구	685	16.7		2,000만 원대	573	14.0
	1세대 가구	1,103	26.9		3,000만 원대	721	17.6
	2세대 가구	2,090	51.0		4,000만 원 이상	2,200	53.7
	3세대 가구	196	4.8				
	조손 가구	26	0.6				

자료: 저자 작성.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5>와 같다.

- 농어촌 지역 응답자 전체 2,503명 중 읍 지역 응답자는 48.4%(1,211명), 면 지역 응답자는 51.6%(1,292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 대전·충청권 응답자가 23.1%(577명), 부산·울산·경남이 19.9%(499명)순으로 조사되었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의 31.9%(798명) 수준이며, 50대 응답자가 21.7%(542명)로 가장 많았다.

<표 2-5>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503	100.0	전체		2,503	100.0	
농어촌 구분	읍부	1,211	48.4	성별	남성	1,262	50.4	
	면부	1,292	51.6		여성	1,241	49.6	
거주지역	서울	-	-	연령대	19~29세	320	12.8	
	인천·경기	316	12.6		30대	361	14.4	
	대전·충청	577	23.1		40대	434	17.3	
	광주·전라	435	17.4		50대	542	21.7	
	대구·경북	435	17.4		60대	502	20.1	
	부산·울산·경남	499	19.9		70대 이상	344	13.7	
	강원·제주	241	9.6		혼인상태	기혼	1,828	73.0
거주기간	10년 미만	922	36.8	미혼		675	27.0	
	10~19년	466	18.6	농림어업	798	31.9		
	20~29년	357	14.3	자영업	180	7.2		
	30~39년	221	8.8	사무·관리직	473	18.9		
	40년 이상	537	21.5	생산·기능·노무직	161	6.4		
귀농귀촌 여부	그렇다	492	19.7	직업	판매/영업직	63	2.5	
	아니다	2,011	80.3		서비스직	112	4.5	
주택형태	단독주택	1,248	49.8		전문/기술직	147	5.9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	292	11.7		주부	235	9.4	
	아파트	922	36.8		학생	100	4.0	
	비거주용건물	2	0.1		퇴직	59	2.3	
	기타	39	1.6		무직/기타	175	7.0	
가구구성	독신 가구	427	17.1		연간 가구소득	1,000만 원 미만	225	9.0
	1세대 가구	811	32.4			1,000만 원대	215	8.6
	2세대 가구	1,118	44.7			2,000만 원대	425	17.0
	3세대 가구	128	5.1	3,000만 원대		469	18.7	
	조손 가구	19	0.8	4,000만 원 이상		1,169	46.7	

자료: 저자 작성.

3

도시·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및 정주 만족도 비교

1.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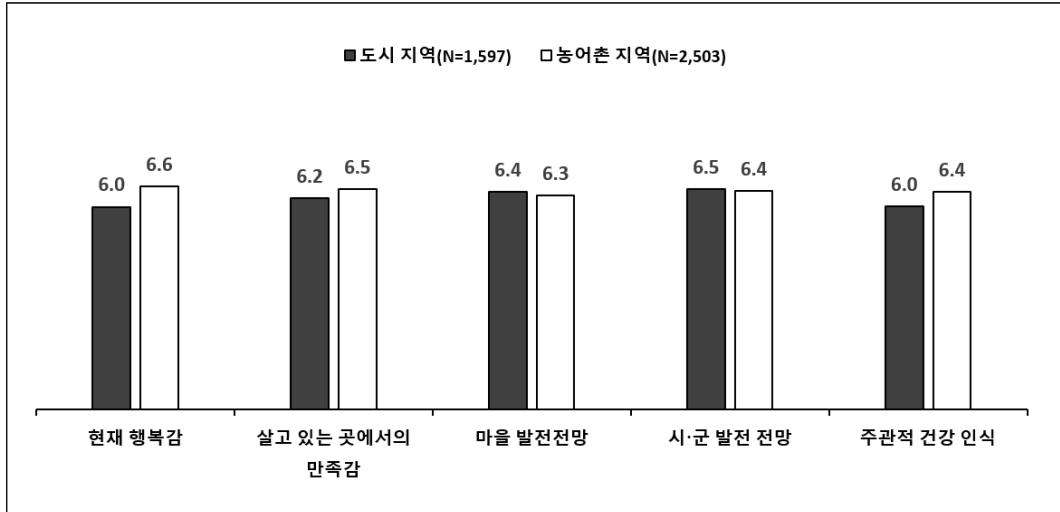
1.1.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는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주관적 건강 인식’을 조사한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전반적 만족도에서 측정한 5개 항목의 점수가 전년도보다 상승하였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의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약간 낮다.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도시 지역 주민들보다 부정적인 편이나 도·농간 점수 격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다만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를 위한 t-검정 결과,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은 도·농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현재 행복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 인식’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2020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은 ‘현재 행복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도·농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감’ 점수 격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 도시 지역의 점수가 높은 ‘마을 발전 전망’ 및 ‘시·군 발전 전망’의 경우 도시 지역의 전망 점수가 더 높지만, 도·농간 점수 격차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표 3-1〉 최근 4년간 전반적 만족도 점수 비교

(단위: 점)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 간 차이
현재 행복감	2020	5.5	6.2	0.7
	2021	6.2	6.6	0.4
	2022	5.8	6.3	0.5
	2023	6.0	6.6	0.6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2020	5.8	6.3	0.5
	2021	6.4	6.7	0.3
	2022	6.0	6.3	0.3
	2023	6.2	6.5	0.3
마을 발전 전망	2020	6.2	5.7	-0.5
	2021	6.8	6.5	-0.3
	2022	6.3	6.1	-0.2
	2023	6.4	6.3	-0.1
시·군 발전 전망	2020	6.3	6.0	-0.3
	2021	6.9	6.6	-0.3
	2022	6.4	6.3	-0.1
	2023	6.5	6.4	-0.1
주관적 건강 인식	2020	-	-	-
	2021	6.3	6.5	0.2
	2022	5.9	6.3	0.4
	2023	6	6.4	0.4
전체 평균	2020	5.9	6.0	0.1
	2021	6.5	6.6	0.1
	2022	6.1	6.3	0.2
	2023	6.2	6.4	0.2

주: 2023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문항의 t값은 p<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도·농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료: 2020~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2.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은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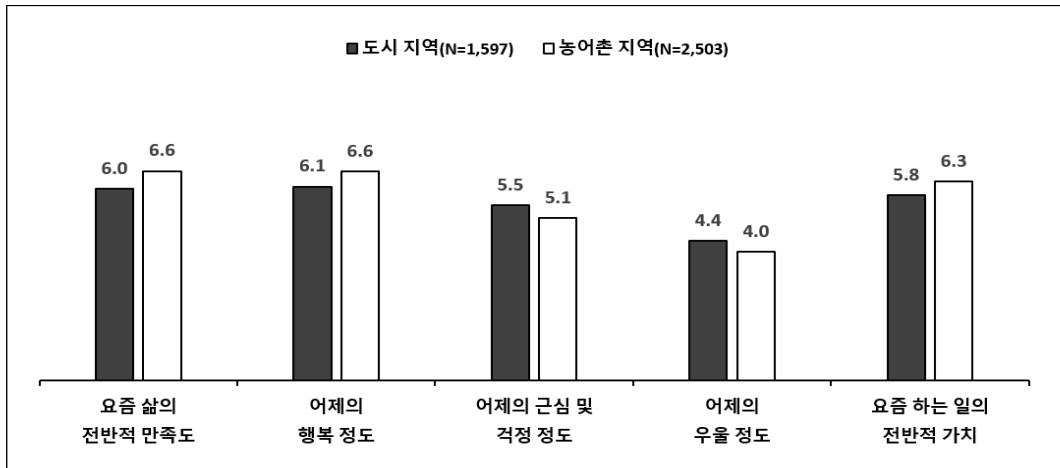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최근 삶에 대한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긍정적인 정서를 묻는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가치 정도'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이 응답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부정적 정서⁵⁾를 묻는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항목에서는 도시 지역 주민보다 낮게 나타난다.
- 결과적으로 5개 문항을 포괄하는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근심·걱정이나 우울감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주관적 웰빙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긍정적 정서인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에 대한 점수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상승하였다.
 - 반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는 도시 지역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개선되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 주민의 주관적 웰빙 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0.2점 상승하였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5) 부정적 정서를 묻는 문항은 만족도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 도시 지역의 경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개선되고 있어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긍정적 정서는 개선되었으나 부정적 정서의 개선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가 유지되었다.

〈표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인식 변화

(단위: 점)

구분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전체 평균		
	'20	'22	'23	'20	'22	'23	'20	'22	'23	'20	'22	'23	'20	'22	'23	'20	'22	'23
도시 지역	5.5	5.7	6.0	5.6	5.8	6.1	5.9	5.8	5.5	5.1	4.5	4.4	5.7	5.7	5.8	5.2	5.4	5.6
농어촌 지역	6.1	6.2	6.6	6.1	6.3	6.6	4.9	4.9	5.1	4.3	3.9	4.0	5.9	6.1	6.3	5.8	6.0	6.0
도·농 차이	0.6	0.5	0.6	0.5	0.5	0.5	-1.0	-0.9	-0.4	-0.8	-0.6	-0.4	0.2	0.4	0.5	0.6	0.6	0.4

주 1) 주관적 웰빙 항목은 2021년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함.

3) 전체 평균 산출 시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역코딩 후 점수 산출에 적용함.

4) 2023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2020~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3. 공동체 및 지역사회

○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및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요 항목인 '공동체'와 '시민참여' 항목의 지표를 반영하여 2020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공동체 및 지역사회' 관련 문항은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와 함께 타 지역 출신 주민에 대해 개방되어있는 태도 정도를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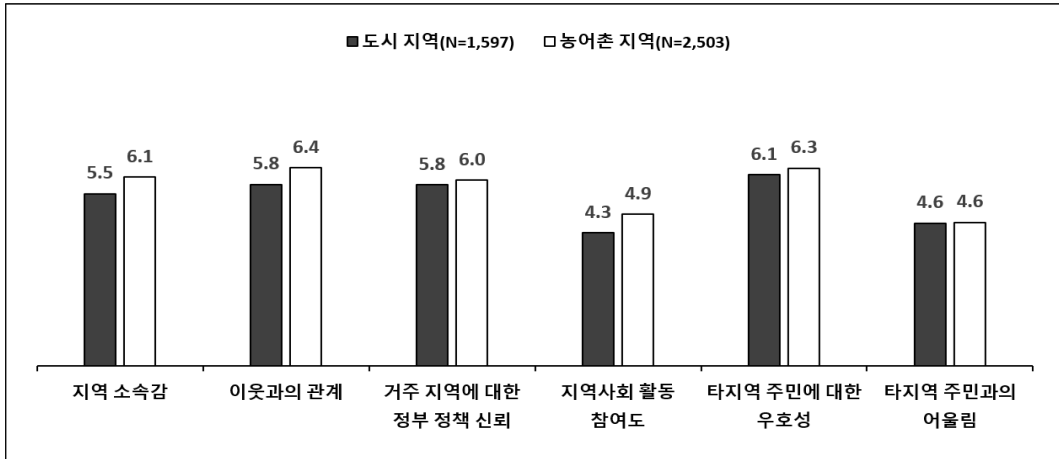
- 조사 항목은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이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항목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문항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각각 0.6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문항은 각각 0.2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최근 4년간의 점수 추이를 살펴보면,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점수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전년대비 0.1~0.3점 상승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모든 항목에서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항목이 전년도보다 각각 0.1점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3개 항목에서는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는 도시 지역 주민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지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모두 전년도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6)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은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거주 지역 외 다양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리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정도를 파악한다.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은 타 지역 주민이 나의 거주 지역으로 왕래 또는 이주하는 것에 대한 우호성을 묻는 문항으로,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의 우호성 정도를 파악한다.

- '지역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문항에 대한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는 각각 5.5점, 5.8점, 4.3점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6.1점, 6.4점, 4.9점으로 0.6점씩 더 높게 나타났다.

-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문항에 대한 도시지역 주민의 점수는 6.1점,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는 6.3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의 전년도 점수는 도시지역 4.6점, 농어촌 지역 4.3점으로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0.3점 낮았으나 당해연도 조사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0.3점 상승하여 도시 지역 주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3〉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단위: 점)

구분	연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 차이
지역 소속감	2020	5.2	5.9	0.7
	2021	5.7	6.1	0.4
	2022	5.4	5.9	0.5
	2023	5.5	6.1	0.6
이웃과의 관계	2020	5.4	6.2	0.8
	2021	5.8	6.4	0.6
	2022	5.7	6.3	0.6
	2023	5.8	6.4	0.6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2020	5.3	5.4	0.1
	2021	5.6	6.0	0.4
	2022	5.8	5.8	0.0
	2023	5.8	6.0	0.2
지역 사회활동 참여	2020	-	-	-
	2021	-	-	-
	2022	4.2	4.5	0.3
	2023	4.3	4.9	0.6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2020	-	-	-
	2021	-	-	-
	2022	6.1	6.3	0.2
	2023	6.1	6.3	0.2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2020	-	-	-
	2021	-	-	-
	2022	4.6	4.3	-0.3
	2023	4.6	4.6	0.0
전체 평균	2020	5.3	5.8	0.5
	2021	5.7	6.2	0.5
	2022	5.3	5.5	0.2
	2023	5.4	5.7	0.4

주: 2023년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문항의 t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도·농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료: 2020~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별 만족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부문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부문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부문별 만족도 점수는 세부 문항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해당 부문의 만족도 점수로 산출하였다. 세부 문항에 따라 응답 대상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전체 응답자에게 공통적으로 설문한 문항의 점수만을 부문별 만족도 점수 산정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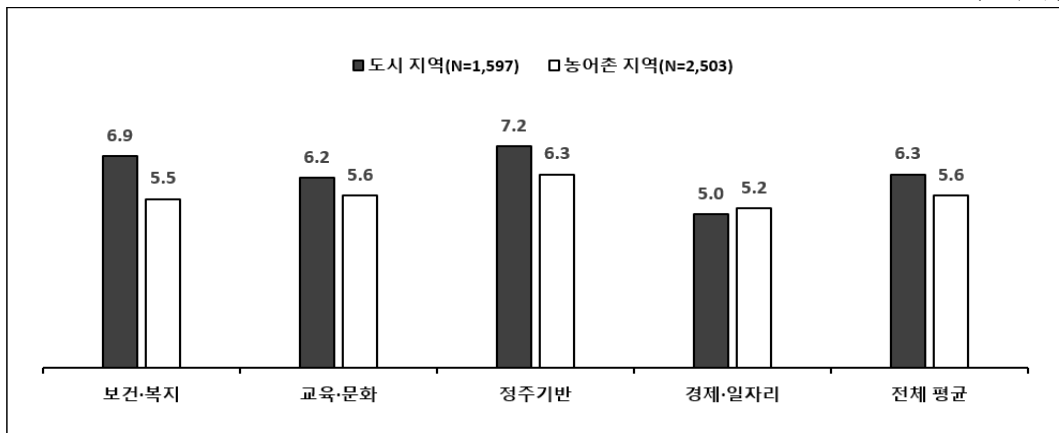
2.1. 4대 부문별 만족도 추이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부문에서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도·농 간 격차가 가장 컸다. 반대로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1.4점, 교육·문화 부문은 0.6점, 정주기반 부문은 0.9점 높았으며,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0.2점 높았다.

〈그림 3-4〉 4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단위: 점)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는 4대 부문에서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며,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일부 부문에서 개선되었다.

- 도시 지역의 교육·문화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의 점수는 전년 대비 각각 0.1점, 0.2점 하락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 점수가 개선되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감소하였다.
- 경제·일자리 부문을 제외한 3개 전략 부문에서는 여전히 도·농간 격차가 존재한다. 격차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 부문으로 두 지역 간 점수 차이가 1.4점이다. 그러나 전년도 보건·복지 부문의 두 지역 간 점수 격차는 작년 1.7점에서 올해는 1.4점으로 감소되었다.

〈표 3-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보건·복지	6.8	6.9	5.1	5.5	-1.7	-1.4
교육·문화	6.3	6.2	5.2	5.6	-1.1	-0.6
정주기반	7.1	7.2	6.2	6.3	-0.9	-0.9
경제·일자리	5.2	5.0	4.7	5.2	-0.5	0.2
전체 평균	6.4	6.3	5.3	5.6	-1.1	-0.7

자료: 2022~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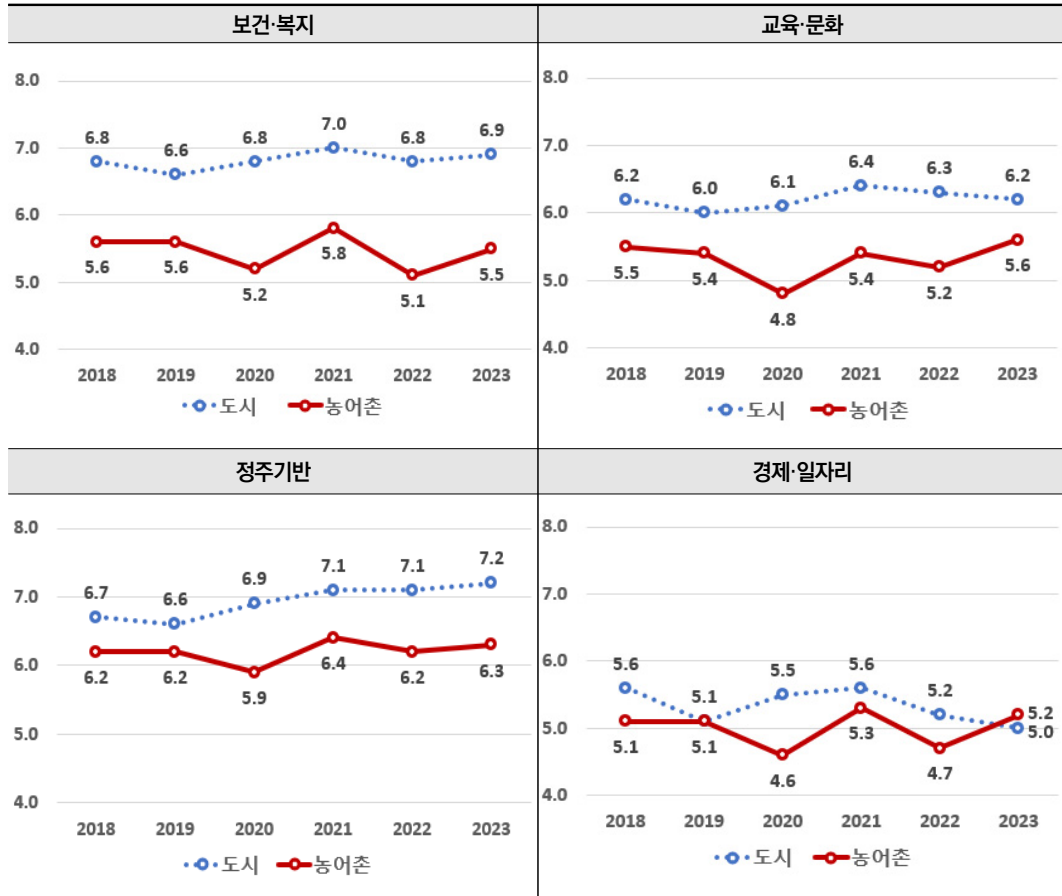
○ 정주 만족도 점수의 척도가 11점 척도로 고정된⁷⁾ 2018년 이후의 4대 부문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문화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보건·복지 부문과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 경제·일자리 부문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점수 격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후 조사에서 도시 지역의 점수가 높아졌다가 2023년은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7)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점~10점)를 사용하였으며, 2014년과 2018년 이후 조사는 11점 척도(0점~10점)를 사용함.

〈그림 3-5〉 4대 부문별 도·농 만족도 점수 추이

(단위: 점)



주: 2020년 이전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을 현재 4대 부문에 맞추어 산출한 수치임.

자료: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각 연도).

2.2. 4대 부문별 세부 항목 만족도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은 4대 부문 중 도·농간 격차가 가장 크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부문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 부문의 도·농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1.4점으로 도·농간 만족도 점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부문 여건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농어작업 안전성⁸⁾’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지역보다 낮았다.
-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평균 1.7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분만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격차가 2.1점으로 도·농간 분만의료 여건에 대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평균 0.7점으로, 의료서비스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 격차는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도·농간 격차가 큰 실정이다.

〈표 3-5〉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단위: 점)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	전체 평균
도시 지역	7.7	7.2	7.1	6.7	7.1	6.6	6.4	6.2	6.4	6.9
농어촌 지역	6.3	5.6	5.6	4.6	5.3	5.6	5.4	5.5	6.4	5.5
도·농 차이	-1.4	-1.6	-1.5	-2.1	-1.8	-1.0	-1.0	-0.7	0.0	-1.4

주: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농어작업 안전성’ 항목 제외).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8) ‘농어작업 안전’ 항목은 전체 응답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만 응답하였으며, 이 문항의 응답자는 총 843명이다. 이 중 농어촌 지역 응답자는 798명이나, 도시 지역 응답자는 45명에 불과하여 균형있는 만족도 점수 산정을 위해 평균 점수 계산 시 해당 문항은 제외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

○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는 타 부문에 비해 도·농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여전히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의 점수보다 낮았다.

- 문화 부문 중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는 0.9점,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0.7점으로, 두 세부 항목 여건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다른 항목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교육 부문 중 ‘공교육 수준’에 대한 만족도 격차(0.6점)보다 ‘방과 후 교육 기회’에 대한 격차(0.9점)가 더 크게 조사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에 관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 수준향상과 함께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기회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한편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대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는 각각 5.8점, 5.2점, ‘문화 공동체 활동’ 만족도는 각각 5.6점, 5.3점으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대학생 멘토링이나 마을교사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문화 공동체 활동’은 동호회나 소모임과 같은 문화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교육과 문화 활동에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표 3-6〉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단위: 점)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전체 평균
도시 지역	6.7	6.7	6.1	5.8	6.4	6.1	5.6	5.9	6.2
농어촌 지역	6.1	5.8	5.5	5.2	5.5	5.4	5.3	5.7	5.6
도농 차이	-0.6	-0.9	-0.6	-0.6	-0.9	-0.7	-0.3	-0.2	-0.6

주: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부문

○ 정주기반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모든 세부 문항에서 도시 주민의 만족도 보다 낮았다. 그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난방 인프라’ 여건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고, ‘대중교통’, ‘생활 서비스’와 ‘다양한 외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 인프라’ 항목 만족도 점수는 6.0점으로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인 7.8점에 비해 1.8점 낮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 비용’ 항목 만족도 점수는 5.3점으로 정주기반 부문 내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저렴한 에너지원(도시가스 등)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 노후 주택의 단열 성능 미비 등 농어촌의 불리한 난방 여건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는 1.5점, ‘생활서비스’와 ‘다양한 외식 장소’에 대한 만족도 점수 격차는 각각 1.3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단위: 점)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인프라	난방인프라	난방비용	생활서비스	식자재구입	다양한외식장소	주택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안전	범죄안전	적은환경오염	정돈된환경경관	전체평균
도시 지역	7.2	7.9	7.6	7.8	6.2	7.3	7.6	7.3	7.0	6.7	7.2	6.9	6.9	6.9	7.2
농어촌 지역	5.7	6.9	6.7	6.0	5.3	6.0	6.4	6.0	6.3	6.3	6.5	6.6	6.4	6.6	6.3
도·농 차이	-1.5	-1.0	-0.9	-1.8	-0.9	-1.3	-1.2	-1.3	-0.7	-0.4	-0.7	-0.3	-0.5	-0.3	-0.9

주: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모든 항목의 t값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

○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2018~2022년 조사의 결과⁹⁾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대비 낮은 항목은 ‘일자리 지원’ 항목이었으며,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는 도·농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 조사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일자리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를 역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세부 항목별로 도·농간 만족도 점수 격차가 완화되거나 역전된 것에 기인한다.
- 2022년 조사에서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낮았던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항목은 도·농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일자리 지원’ 항목의 만족도 점수 격차는 도시 지역이 0.1점 높았고, ‘충분한 소득’ 항목은 농어촌 지역이 0.1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 신규로 추가된 ‘적절한 물가수준’ 항목에서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5.2점으로 도시 지역 만족도 5.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로컬푸드 판매’,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등 항목은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단위: 점)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적절한 물가수준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전체 평균
도시 지역	4.8	4.7	5.1	5.1	5.1	5.3	4.8	5.1	-	5.0
농어촌 지역	4.8	4.7	5.2	5.2	5.0	5.7	5.3	5.4	5.4	5.2
도·농 차이	0.0	0.0	0.1	0.1	-0.1	0.4	0.5	0.3	-	0.2

주 1) 균형있는 비교를 위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조사된 공통 문항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을 계산함.

2) 만족도 점수의 도·농간 비교 시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적절한 물가수준’, ‘일자리 지원’ 문항의 t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도·농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⁹⁾ 2022년까지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2019년 경제·일자리 부문의 도·농간 만족도 평균 점수가 동일하게 조사된 바(도·농 5.1점) 있으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는 등락을 반복하며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격차를 좁혀가고 있었다.

2.3.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중요도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부문 중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4대 부문별 중요도 점수는 도시 지역이 소폭 높았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보건·복지 및 정주기반,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3-9〉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별 중요도 점수

(단위: 점)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	7.2	6.8
필요한 것을 배우거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여건	6.7	6.5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	7.2	6.8
적절한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제·일자리 여건	6.6	6.4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IPA분석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4대 부문 전체의 중요도 및 만족도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눈 사분면에 현상유지, 유지관리, 점진개선, 우선개선 영역을 표시하여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중요도 측면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전체 평균은 6.8점이다. 도시 지역은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농어촌 지역은 교육·문화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 만족도 측면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전체 평균은 6.0점이다. 도시 지역은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표 3-1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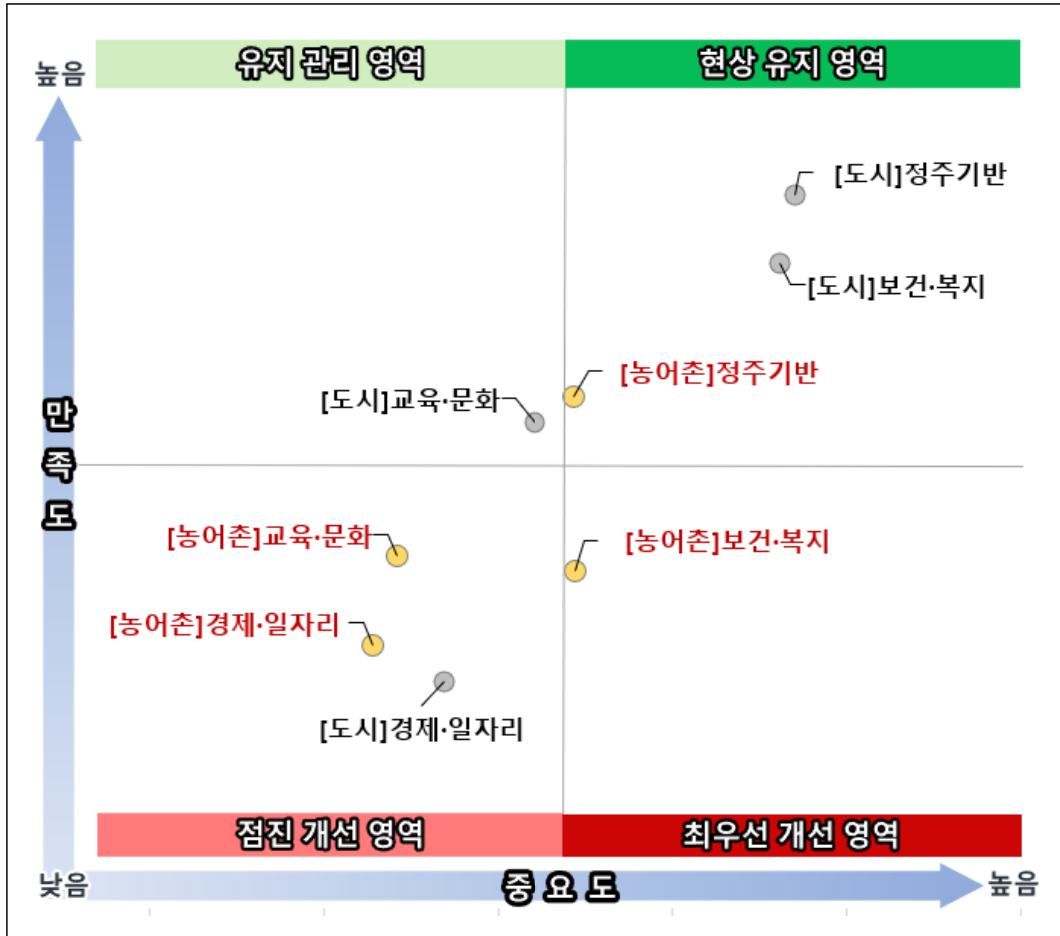
전략		중요도(X축)	만족도(Y축)
도시	보건·복지	7.2	6.9
	교육·문화	6.7	6.2
	정주기반	7.2	7.2
	경제·일자리	6.6	5.0
농어촌	보건·복지	6.8	5.5
	교육·문화	6.5	5.6
	정주기반	6.8	6.3
	경제·일자리	6.4	5.2
전체 평균		6.8	6.0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4대 정책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부문이 최우선 개선 영역에 해당하였고, 교육·문화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이 점진 개선 영역에 해당하였다.

- 농어촌 주민들의 만족도와 중요도가 둘 다 높게 나타난 항목은 정주기반 부문이었으나, 도시 지역과의 중요도 및 만족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도시 주민들은 경제·일자리 부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정주기반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IPA 분석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정주 만족도에 따라 이주 의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과 정주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농어촌 지역 주민 중에서는 36.1%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도시 지역 주민 중에서는 50.5%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어촌 주민의 주된 이주 사유는 ‘직장이나 일자리(35.4%)’, ‘주택 문제(16.2%)’라고 응답했으며, 도시 주민은 ‘주택 문제(31.7%)’, ‘직장이나 일자리(25.5%)’를 주요 사유로 꼽았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 이유로 ‘자녀 교육(12.9%)’과 ‘의료서비스/건강(12.5%)’이 뒤를 이었으나, 도시 지역 주민의 경우 ‘자연환경(16.2%)’이 3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 %)

구분	응답 비율	
	도시 주민 (n=807)	농어촌 주민 (n=904)
직장이나 일자리 때문에	25.5	35.4
주택 문제 때문에(주택 노후 등)	31.7	16.2
자녀 교육 때문에	8.4	12.9
의료서비스 / 건강 때문에	4.1	12.5
기초생활서비스 때문에(생필품 구입 등)	1.9	4.1
교통 때문에	4.3	6.6
체육활동,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 때문에	3.5	6.5
자연환경 때문에	16.2	3.0
안전 문제 때문에(자연재해, 치안 등)	0.6	0.8
기타	3.7	2.0
합계	100.0	100.0

주: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n=1,711)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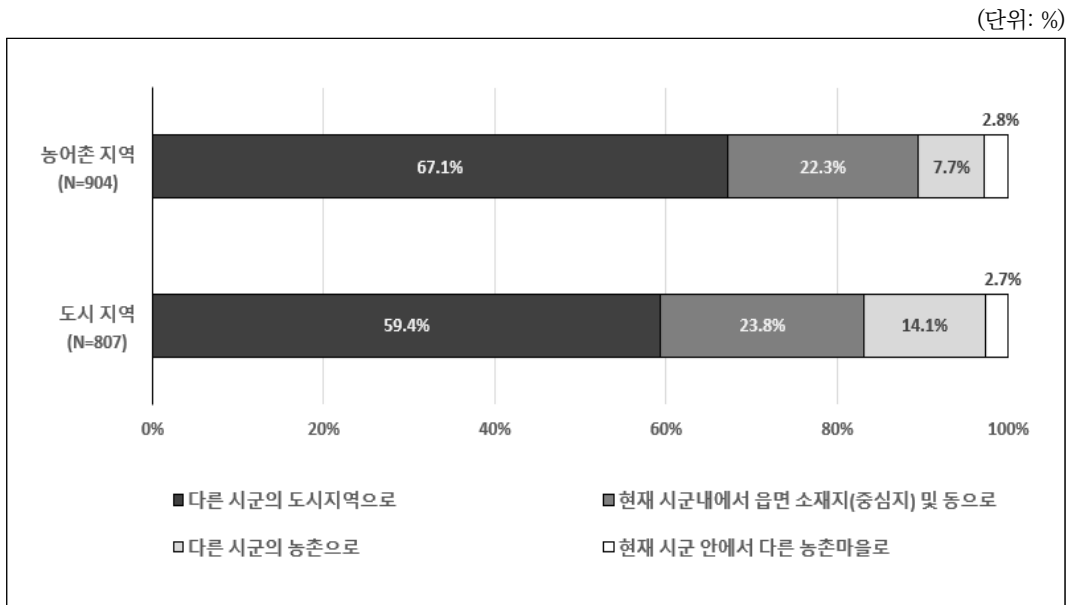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 지역을 물어본 결과, 85% 이상 주민들이 도시 지역(다른 시·군 또는 현재 시·군)으로 이주하길 희망하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 중 63.5%는 다른 시·군의 도시 지역으로, 23.0%는 현재 시·군 내의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였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농어촌 주민 중 67.1%는 다른 시·군의 도시 지역으로, 22.3%는 현재 시·군의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희망 농어촌 주민의 89.5%가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였다.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 중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은 10.5%에 불과했다.

-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 주민들도 다른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선호(83.2%)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 비율도 16.8%로 농어촌 주민의 응답에 비해 6.3%p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주 희망 주민 대상)



주: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n=1,711)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이주 희망 여부에 따른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정주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4대 부문별 만족도 등 모든 정주 만족도 항목에서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 의향에 따른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격차는 ‘사회단체 참여도(1.9점)’, ‘지역 소속감(1.7점)’ 등 공동체 및 지역사회 관련 문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에서 생활 만족도(1.4점)’, ‘현재 행복감(1.2점)’ 등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4대 부문 중 특히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이주 의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이주 의향 있음	이주의향 없음	이주 의향 있음	이주의향 없음
삶의 만족도	현재 행복감	5.6	6.3	5.8	7.0
	지역에서 생활 만족도	5.7	6.8	5.6	7.0
	마을 발전 전망	6.0	6.8	5.6	6.7
공동체/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5.1	6.0	5.0	6.7
	대인관계	5.5	6.2	5.4	6.9
	지역정책 신뢰도	5.4	6.2	5.0	6.5
	사회단체 참여도	3.9	4.7	3.7	5.6
4대 전략별 만족도	보건·복지	6.6	7.1	4.9	5.8
	교육·문화	5.9	6.4	5.0	5.9
	정주기반	7.0	7.4	5.9	6.5
	경제·일자리	4.6	5.4	4.3	5.7
	전체 평균	6.0	6.6	5.0	6.0

주: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n=1,711)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및 정주 여건 분석

1.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 농어촌 주민의 인구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2,503명)의 연령, 직업군, 성별, 거주 지역에 따른 삶의 질 만족도 점수를 도출하였다.¹⁰⁾
- 농어촌 인구 특성과 지역을 세분화하여 전반적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 비교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1.1. 전반적 만족도

○ 연령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40대 이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¹⁰⁾ 4장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만족도를 비교함. 비교 그룹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t-검정,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만족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4~5>에 수록함.

- 연령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40대 이하 6.2점, 50대 6.6점, 60대 6.7점, 70대 이상 6.6점으로 나타났다.
 -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재 행복감’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 40대 이하 청년층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농어촌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읍부보다 면부의 평균 만족도가 높았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6.5점, 6.4점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현재 행복감에 대한 점수가 6.6점으로 높았고,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점수가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은 ‘주관적 건강상태’도 6.3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t-검정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성별 간 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부의 평균 전반적 만족도는 6.4점, 면부는 6.5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복감’은 면부에서 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항목은 통계적으로 읍·면 간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직업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농림어업 직군이 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농림어업과 기타 직군은 5.5점으로 다소 낮았다.
- 모든 직업군에서 ‘현재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직업군별로는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군의 ‘현재 행복감’이 6.3점으로 농림어업 종사자보다 약간 높았다.
 - 직업군 간 평균 비교를 위한 분산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비농림어업 직업군과 기타 직업군의 만족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주관적 웰빙

- 연령에 따른 주관적 웰빙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낮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어제의 행복감’ 및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등 긍정적 정서에서 40대 이하 연령대의 만족감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고,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과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문항에서도 40대 이하 연령층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청년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성별에 따른 주관적 웰빙 평균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았고, 지역별로는 읍부보다 면부의 평균 만족도가 높았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6.1점, 6.0점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6.6점으로 높았다. t-검정 결과 주관적 웰빙의 모든 항목은 성별간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부의 평균 전반적 만족도는 5.9점, 면부는 6.2점으로 나타났다.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면부에서 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정서를 묻는 다른 항목들도 면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를 묻는 문항은 읍부의 응답자보다 면부의 응답자가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직업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는 농림어업 직군이 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농림어업과 기타 직군은 각각 5.9점, 5.8점으로 다소 낮았다.
 - 모든 직업군에서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묻는 다른 문항들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높았다.
 - 특히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를 묻는 문항에서는 비농림어업 직업군의 만족도가 기타 직업군에 비해 높았으며, 타 문항과 달리 두 직업군 간 평균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공동체 및 지역사회

- 연령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5.2점으로 가장 낮았고, 타 연령층은 모두 6.0점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연령대별 평균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40대 이하 5.2점, 50대 6.0점, 60대 6.2점, 70대 이상 6.1점으로 나타났다.
 -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4.2점)’,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4.4점)’ 항목이 특히 낮았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지역 소속감’,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70대 이상 연령층과의 만족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은 남성의 만족도 점수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면 지역의 점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점수는 각각 5.9점, 5.5점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수가 각각 6.5점, 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에 대한 점수가 각각 5.0점, 4.2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앞서 전반적 만족도 및 주관적 웰빙 점수와 달리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인식은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부의 평균 점수는 5.6점, 면부는 5.8점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1점, 6.6점으로 높았고, 읍·면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에 따른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농림어업 직군군이 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농림어업과 기타 직군은 각각 5.4점, 5.3점으로 다소 낮았다.
 - 특히 모든 항목에서 농림어업 직군군의 점수가 높고,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군과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공동체 인식이 훨씬 두터웠다.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과 지역에 따른 삶의 만족도 부문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지역	
	40대 이하 (n=1,115)	50대 (n=542)	60대 (n=502)	70대 이상 (n=344)	70대 이상 (n=344)	농림어업 (n=79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136)	주부·학생 퇴직 기타 (n=569)	남성 (n=1,262)	여성 (n=1,241)	읍부 (n=1,211)	면부 (n=1,292)	
	6.3	6.7	6.9	6.9		6.2	6.3	6.3	6.6	6.6	6.4	6.7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6.1	6.7	6.8	6.8	5.8	5.4	5.4	6.5	6.4	6.4	6.5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정도	6.1	6.5	6.4	6.5	5.9	5.5	5.6	6.3	6.3	6.4	6.2	
	마을 발전 전망	6.1	6.6	6.7	6.8	4.8	4.6	4.4	6.4	6.4	6.5	6.4	
	시군 발전 전망	6.4	6.6	6.6	6.8	5.6	5.2	5.1	6.5	6.3	6.4	6.4	
주관적 웰빙	주관적 건강상태	6.2	6.6	6.7	6.6	5.9	5.5	5.5	6.5	6.4	6.4	6.5	
	평균	6.3	6.7	6.8	7.1	7.1	6.4	6.3	6.6	6.6	6.4	6.7	
	오즘살의 전반적 만족도	6.3	6.7	6.8	6.9	6.9	6.4	6.3	6.5	6.6	6.5	6.6	
	어제의 행복감	5.7	5.0	4.5	4.4	4.8	5.3	5.2	5.1	5.1	5.4	4.9	
공동체 및 지역사회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4.4	3.9	3.6	3.7	4.1	4.0	4.0	4.0	4.1	4.2	3.9	
	어제의 우울 정도	5.9	6.4	6.6	6.7	6.7	6.2	5.8	6.3	6.2	6.1	6.4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	5.6	6.2	6.4	6.6	6.5	5.9	5.8	6.1	6.0	6.1	6.4	
	평균	5.5	6.3	6.5	6.8	7.0	5.7	5.6	6.2	6.0	5.8	6.3	
공통체 및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5.5	6.6	6.8	7.3	7.2	6.0	5.9	6.5	6.2	6.1	6.6	
	거주지역에 대한 지역정책 신뢰도	4.2	5.4	5.5	5.4	6.0	4.5	4.1	5.2	4.6	4.6	5.1	
	사회단체에 참여도	5.9	6.6	6.7	6.7	6.7	6.2	6.2	6.4	6.3	6.3	6.4	
	타 지역 주민에 우호도	4.4	5.1	5.0	4.1	5.1	4.5	4.1	5.0	4.2	4.6	4.6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5.2	6.0	6.2	6.1	6.4	5.4	5.3	5.9	5.5	5.6	5.8		
평균	5.2	6.0	6.2	6.1	6.4	5.4	5.3	5.9	5.5	5.6	5.8		

주 1) 연령대와 직업군의 분산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대부분 항목의 50대와 60대의 만족도에 통계적 차이가 없으며,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군간 점수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4〉 참조).

2) 성별 및 지역의 t-검정 결과, 전반적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부문에서는 5% 수준에서 성별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으나,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에서는 성별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4〉 참조).

3)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전체 평균 산출 시에는 역코딩 후 적용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2. 주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1.1. 개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경향과 마찬가지로, 40대 이하 응답자는 ‘분만 의료 서비스(4.7점)’,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5.1점)’, ‘아동 양육보호 지원(5.2점)’, ‘취약계층 복지 지원(5.2점)’ 순으로 여건 만족도가 낮았으며, 40대 보건·복지 부문 평균 점수(5.3점)에 미치지 못했다.

- 특히 ‘분만 의료 서비스’와 ‘아동 양육보호 지원’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 것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출산과 양육 여건이 열악한 것을 보여준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 지역에서 젊은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자녀 양육에 관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비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 부문 중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보호 지원’ 항목은 농림어업 종사자와 비농림어업 종사자 간의 만족도 격차가 각각 0.4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농어촌 남성의 보건·복지 평균 만족도는 5.7점, 농어촌 여성은 5.3점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 항목 중 농어촌 남성과 여성 간의 만족도 격차가 큰 항목은 ‘분만 의료 서비스’(남성 4.8점, 여성 4.4점),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남성 5.5점, 여성 5.1점)로 나타났다.

〈표 4-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40대 이하 (n=1,115)	50대 (n=542)	60대 (n=502)	70대 이상 (n=344)	농림어업 (n=798)	비농림어업 (사무직등) (n=1,136)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	남성 (n=1,262)	여성 (n=1,241)
의료 서비스 접근성	6.1	6.6	6.5	5.9	6.2	6.3	6.3	6.4	6.2
의료 서비스 범위	5.3	5.9	5.8	5.5	5.8	5.4	5.4	5.7	5.4
의료 서비스 수준	5.5	5.9	5.8	5.6	5.9	5.5	5.6	5.8	5.5
분만의료 서비스	4.7	5.0	4.5	4.2	4.8	4.6	4.4	4.8	4.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1	5.6	5.5	5.3	5.6	5.2	5.1	5.5	5.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3	6.0	5.8	5.7	5.9	5.5	5.5	5.7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2	5.8	5.6	5.3	5.7	5.3	5.3	5.5	5.3
취약계층 복지 지원	5.2	5.9	5.8	5.6	5.8	5.5	5.3	5.7	5.4
농어작업 안전(종사자만)	6.2	6.5	6.7	6.3	6.5	-	-	6.5	6.3
평균	5.3	5.8	5.7	5.4	5.7	5.4	5.4	5.7	5.3

주 1) 평균 점수는 '농어작업 안전'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2)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든 항목의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

3)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직군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4) 성별 간 t-검정 결과,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은 5% 수준에서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부문

○ 연령별로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화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50대와 60대에 비해 4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의 교육·문화 여건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세부 항목 중 교육 부문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 부문의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은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40대 이하 연령층은 50~60대 연령층 대비 '문화·여가 시설'과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0.4점, '문화 공동체 활동'이 0.5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 내 젊은 청년층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50~60대에 비해 0.6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비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직업별 교육·문화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 5.8점, 비농림어업 종사자 5.5점, 기타 종사자 5.4점으로 농림어업 직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세부 여건 중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 공동체 활동' 항목은 농림어업 직군과 비농림어업 직군과의 만족도 격차가 0.7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문화·여가시설(5.6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기타 직업군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4.9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4-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40대 이하 (n=1,115)	50대 (n=542)	60대 (n=502)	70대 이상 (n=344)	농림어업 (n=798)	비농림어업 (사무직등) (n=1,136)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	남성 (n=1,262)	여성 (n=1,241)
공교육 수준	6.0	6.4	6.3	5.9	6.3	6.0	6.0	6.2	6.1
방과 후 교육 기회	5.8	6.1	5.9	5.5	5.8	5.9	5.8	5.8	5.8
평생교육 기회	5.3	5.7	5.6	5.5	5.8	5.3	5.3	5.5	5.4
지역사회 연계 교육	5.1	5.5	5.3	5.2	5.7	5.0	4.9	5.3	5.1
문화·여가 시설	5.3	5.7	5.7	5.1	5.6	5.4	5.4	5.5	5.4
문화·여가 프로그램	5.2	5.6	5.5	5.4	5.7	5.2	5.2	5.5	5.3
문화 공동체 활동	5.1	5.6	5.5	5.4	5.8	5.1	5.0	5.5	5.1
지역 향토문화 기회	5.5	6.0	5.7	6.0	6.1	5.6	5.5	5.8	5.6
평균	5.4	5.8	5.7	5.5	5.8	5.5	5.4	5.6	5.5

주 1)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든 항목의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

2)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방과후 교육기회', '문화여가시설'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으며, 모든 항목에서 비농림어업 직군과 기타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3) 성별 간 t-검정 결과,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항목은 5% 수준에서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주: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든 항목의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남성의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는 5.6점으로 농어촌 여성의 만족도보다 0.1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부 여건 전반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특히 '지역사회 연계 교육(5.1점)', '문화 공동체 활동(5.1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또한 '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 5.5점, 여성 5.1점으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가 낮아 남녀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주기반 부문

- 연령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난방 여건 관련 항목의 만족도가 낮았다.
 - 정주기반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 연령층이 6.1점으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6.5점으로 가장 높았다.
 - 세부 여건 중 40대 이하 연령층은 '대중교통'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5.3점으로 가장 낮았다. 50대, 60대, 70대 이상 응답자의 '난방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5점, 5.2점, 4.7점, '난방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4점, 5.9점, 4.9점으로 나타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난방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였다.
- 전반적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난방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지만, 농림어업 종사자는 난방 여건이,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기타 직군은 대중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난방 비용(5.2점)'과 '난방 인프라(5.5점)', 비농림어업과 기타 직업군은 '대중교통(5.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환경뿐만 아니라 출퇴근 및 근무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체감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농어촌 남성의 정주기반 부문 평균 만족도는 6.3점, 농어촌 여성은 6.2점으로 나타나 남성의 만족도가 0.1점 높았다.
 - 세부 여건 중 농어촌 남성과 여성 모두 '난방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4점, 5.3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8점, 5.6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 정주기반 세부 여건 중 '대중교통' 항목과 '적은 환경오염'의 격차가 0.2점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세부 여건은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연령				직업			성별	
	40대 이하 (n=1,115)	50대 (n=542)	60대 (n=502)	70대 이상 (n=344)	농림어업 (n=798)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1,136)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	남성 (n=1,262)	여성 (n=1,241)
대중교통	5.3	6.0	5.9	6.1	6.0	5.5	5.5	5.8	5.6
통신시설	6.9	7.2	7.1	6.4	6.6	7.1	7.0	6.9	6.9
생활 인프라	6.5	7.0	6.8	6.7	6.5	6.8	6.7	6.7	6.7
난방 인프라	6.3	6.4	5.9	4.9	5.5	6.4	6.2	6.0	6.1
난방 비용	5.5	5.5	5.2	4.7	5.2	5.5	5.3	5.4	5.3
생활 서비스	5.9	6.3	6.0	5.8	6.0	6.0	6.0	6.0	5.9
식자재 구입	6.4	6.7	6.3	5.9	6.2	6.5	6.5	6.4	6.3
다양한 외식 장소	5.9	6.4	6.0	5.7	5.9	6.1	6.0	6.0	6.0
주택 상태	6.2	6.6	6.3	6.3	6.3	6.4	6.3	6.3	6.3
교통안전	6.1	6.5	6.4	6.8	6.5	6.2	6.2	6.3	6.3
자연재해 안전	6.2	6.8	6.7	6.9	6.7	6.5	6.3	6.6	6.5
범죄 안전	6.4	6.8	6.7	6.9	6.7	6.6	6.5	6.6	6.6
적은 환경오염	6.0	6.6	6.6	6.9	6.6	6.3	6.2	6.5	6.3
정돈된 환경 경관	6.3	6.8	6.7	7.1	6.8	6.5	6.4	6.7	6.6
평균	6.1	6.5	6.3	6.2	6.2	6.3	6.2	6.3	6.2

주 1)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든 항목의 집단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

2)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생활서비스', '외식', '주택상태', '범죄안전'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으며, 모든 항목에서 비농림어업 직군과 기타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3) 성별 간 t-검정 결과, '대중교통'과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서만 5% 유의수준에서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

○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는 일자리와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연령별 경제·일자리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에서 5.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50대와 60대의 만족도가 5.3점인 한편, 70대 이상의 만족도가 5.6점으로 가장 높았다.
- 세부 여건 중 40대 이하와 50대, 60대는 '일자리 충분성(각각 4.4점, 4.9점, 4.8점)', 70대 이상 연령층은 '일자리 용이성(4.9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6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및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적절한 구직 활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비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정규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 직군의 만족도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 경제·일자리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 5.9점, 비농림어업 종사자 4.9점, 기타 직업군 4.8점으로 나타나 타 부문에 비해 직군 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조사되었다.
 - 농림어업 종사자는 ‘일자리 용이성(5.5점)’,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기타 직업군은 ‘일자리 충분성(4.4점, 4.1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농어촌 남성의 경제·일자리 부문 평균 만족도는 5.3점, 농어촌 여성은 5.0점으로 타 부문에 비해 남녀 간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농어촌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 충분성(남성 4.9점, 여성 4.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또한 ‘일자리 용이성(남성 5.0점, 여성 4.6점)’, ‘일자리 충분성(남성 4.9점, 여성 4.5점)’,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남성 5.5점, 여성 5.1점)’ 항목에서 남녀 간 격차가 각각 0.4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5〉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단위: 점)

구 분	연령			직업				성별	
	40대 이하 (n=1,115)	50대 (n=542)	60대 (n=502)	70대 이상 (n=344)	농림어업 (n=798)	비농림어업 (사무직등) (n=1,136)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	남성 (n=1,262)	여성 (n=1,241)
일자리 용이성	4.7	5.1	4.9	4.9	5.5	4.6	4.3	5.0	4.6
일자리 충분성	4.4	4.9	4.8	5.2	5.6	4.4	4.1	4.9	4.5
충분한 소득	5.1	5.3	5.2	5.5	5.8	5.0	4.9	5.4	5.1
물가 수준 적절성	5.0	5.3	5.2	5.4	5.9	4.9	4.8	5.3	5.0
일자리 지원	4.8	5.2	5.1	5.3	5.7	4.7	4.6	5.2	4.8
로컬푸드 판매	5.5	5.7	5.7	6.1	6.3	5.4	5.4	5.8	5.6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0	5.4	5.4	5.9	6.0	5.0	5.0	5.5	5.1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5.2	5.5	5.5	5.9	6.1	5.1	5.1	5.5	5.3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5.1	5.5	5.7	5.9	6.2	5.0	5.1	5.5	5.3
평균	5.0	5.3	5.3	5.6	5.9	4.9	4.8	5.3	5.0

주 1) 연령대의 분산분석 결과, '충분한 소득' 항목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연령대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2) 직군별 분산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비농림어업 직군과 기타 직군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

3) 성별 간 t-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모든 항목의 성별 간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1.2. 교차 특성에 따른 만족도 분석

□ 성별·연령별 만족도 분석

○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연령대 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연령대 간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 남성의 경우 보건·복지 평균 만족도는 50대(5.8점), 70대(5.8점), 40대 이하(5.6점), 60대(5.5점)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연령대 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50대(5.9점), 60대(5.8점), 70대 이상(5.1점), 40대 이하(5.0점) 순으로 나타나 40대 이하와 70대 이상 여성의 만족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남성 동일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낮게 조사되었다.
- 특히 40대 이하 여성의 경우 '분만 의료 서비스'와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항목에서 40대 이하 남성보다 만족도가 0.9점씩 낮았고, 70대 이상 여성은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이 70대 이상 남성보다 0.9점,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서비스 범위',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0.8점씩 낮아 여성 고령층 여성의 의료 여건 만족도가 매우 저조했다.

〈표 4-6〉 성별·연령별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39)	여성 (n=576)	남성 (n=284)	여성 (n=258)	남성 (n=286)	여성 (n=216)	남성 (n=153)	여성 (n=191)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4	5.9	6.5	6.8	6.3	6.8	6.4	5.6
	의료 서비스 범위	5.6	5.1	5.9	5.8	5.7	5.9	5.9	5.1
	의료 서비스 수준	5.8	5.2	5.9	5.8	5.6	6.1	6.0	5.2
	분만 의료 서비스	5.1	4.2	4.9	5.0	4.4	4.6	4.7	3.8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5.5	4.6	5.6	5.5	5.5	5.6	5.6	5.2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6	5.0	5.8	6.1	5.7	6.0	6.0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5	5.0	5.8	5.9	5.4	5.8	5.6	5.0
	취약계층 복지 지원	5.5	4.9	5.7	6.1	5.6	6.0	6.0	5.4
	농어작업 안전 (종사자만)	6.2	6.2	6.5	6.5	6.7	6.6	6.6	6.0
	평균	5.6	5.0	5.8	5.9	5.5	5.8	5.8	5.1

주: 보건·복지 부문의 평균 점수는 '농어작업 안전'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부문에서 남성의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와 50대의 만족도 차이가 0.8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 남성의 교육·문화 평균 만족도는 50대(5.7점), 70대(5.7점), 40대 이하(5.6점), 60대(5.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만족도는 50대(6.0점), 60대(5.8점), 70대 이상(5.3점), 40대 이하(5.2점) 순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하와 50대, 60대 남성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70대 이상 남성은 '문화·여가 시설'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 연령층은 '문화 공동체 활동', 50대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 60대 연령층은 교육·문화 항목 중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 공동체 활동', 70대 이상 연령층은 '문화·여가 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연령대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4-7〉 성별·연령별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39)	여성 (n=576)	남성 (n=284)	여성 (n=258)	남성 (n=286)	여성 (n=216)	남성 (n=153)	여성 (n=191)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6.2	5.9	6.2	6.6	6.2	6.5	6.2	5.7
	방과 후 교육 기회	5.8	5.7	5.9	6.3	5.8	6.1	5.8	5.2
	평생교육 기회	5.5	5.1	5.5	6.0	5.5	5.7	5.6	5.3
	지역사회 연계 교육	5.3	4.9	5.3	5.6	5.2	5.4	5.5	5.0
	문화·여가 시설	5.6	5.1	5.6	5.9	5.5	5.8	5.4	4.9
	문화·여가 프로그램	5.5	5.0	5.5	5.7	5.4	5.6	5.7	5.1
	문화 공동체 활동	5.5	4.7	5.5	5.7	5.5	5.4	5.5	5.3
	지역 향토문화 기회	5.8	5.2	5.9	6.1	5.6	5.8	6.1	6.0
	평균	5.6	5.2	5.7	6.0	5.6	5.8	5.7	5.3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부문에서도 남성의 연령대별 만족도 차이보다 여성의 연령대별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의 정주기반 부문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6.3점), 50대(6.4점), 60대(6.3점), 70대 이상(6.3점)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50대(6.7점), 60대

(6.4점), 70대 이상(6.2점), 40대 이하(6.0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연령대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 특히 여성의 4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 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조사되었는데, '대중교통' 항목이 1.1점 차이로 연령대 간 격차가 가장 컸다.
- 남성과 여성 모두 '난방 비용' 항목의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70대 이상 여성의 만족도가 4.6점으로 매우 낮았고, '난방 인프라'에 있어서도 4.7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낮아 고령 여성의 겨울철 건강이 우려된다.

〈표 4-8〉 성별·연령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39)	여성 (n=576)	남성 (n=284)	여성 (n=258)	남성 (n=286)	여성 (n=216)	남성 (n=153)	여성 (n=191)
정주 기반	대중교통	5.6	5.0	5.9	6.1	5.7	6.1	6.3	5.9
	통신시설	6.9	6.9	7.1	7.3	7.1	7.0	6.5	6.3
	생활 인프라	6.6	6.4	6.9	7.2	6.8	6.8	6.7	6.7
	난방 인프라	6.3	6.3	6.1	6.6	5.8	6.1	5.0	4.7
	난방 비용	5.7	5.4	5.3	5.7	5.2	5.2	4.9	4.6
	생활 서비스	6.1	5.7	6.1	6.5	5.9	6.2	6.0	5.6
	식자재 구입	6.5	6.3	6.5	6.8	6.3	6.3	6.2	5.7
	다양한 외식 장소	6.0	5.8	6.1	6.6	6.0	6.1	5.8	5.7
	주택 상태	6.3	6.1	6.4	6.9	6.4	6.3	6.3	6.3
	교통안전	6.2	5.9	6.3	6.7	6.4	6.5	6.8	6.8
	자연재해 안전	6.3	6.1	6.7	6.9	6.7	6.7	6.8	7.0
	범죄 안전	6.6	6.2	6.6	7.0	6.7	6.8	6.8	7.0
	적은 환경오염	6.3	5.7	6.5	6.7	6.6	6.5	6.7	7.0
	정돈된 환경·경관	6.6	6.1	6.7	7.0	6.6	6.7	6.9	7.3
	평균	6.3	6.0	6.4	6.7	6.3	6.4	6.3	6.2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는 70대 이상 남성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40대 이하 여성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 남성의 경제·일자리 부문 평균 만족도는 40대 이하(5.3점), 50대(5.3점), 60대(5.2점), 70대 이상(5.9점)으로 70대 이상 남성의 점수가 남성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

의 경우 40대 이하(4.7점), 50대(5.4점), 60대(5.4점), 70대 이상(5.3점)으로 40대 이하 여성의 점수가 여성 평균 점수보다 저조했다.

- 세부 여건 중 '일자리 충분성' 항목은 70대 이상 남성을 제외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 연령 층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하 농어촌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40대 이하 여성은 모든 세부 여건에서 40대 이하 남성보다 만족도 점수가 낮았고, 특히 '일자리 충분성'은 4.0점, '일자리 용이성'은 4.2점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 여성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성별·연령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n=539)	여성 (n=576)	남성 (n=284)	여성 (n=258)	남성 (n=286)	여성 (n=216)	남성 (n=153)	여성 (n=191)
경제 ·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5.1	4.2	5.0	5.2	4.8	5.0	5.3	4.6
	일자리 충분성	4.9	4.0	4.8	4.9	4.7	5.0	5.6	4.8
	충분한 소득	5.4	4.8	5.3	5.3	5.1	5.2	5.8	5.3
	물가 수준 적절성	5.3	4.8	5.3	5.3	5.1	5.3	5.7	5.2
	일자리 지원	5.2	4.5	5.1	5.2	5.0	5.2	5.6	5.1
	로컬푸드 판매	5.7	5.3	5.7	5.8	5.5	5.8	6.4	5.9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4	4.6	5.4	5.5	5.4	5.5	6.3	5.7
	다문화주민 경제활동 지원	5.5	4.9	5.4	5.7	5.3	5.7	6.2	5.7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5.4	4.8	5.4	5.6	5.6	5.7	6.1	5.7
	평균	5.3	4.7	5.3	5.4	5.2	5.4	5.9	5.3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성별·직업군별 만족도 분석

○ 성별에 따라 직업군을 구분하여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농림어업 종사자의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기타 직군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남성의 보건·복지 부문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5.8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5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5.7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5.6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2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5.2점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직군에 상관없이 '분만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저조했고,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항목에서는 여성의 직군 간 만족도 격차가 0.7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10〉 성별·직업별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3)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3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61)	농림어업 (n=335)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49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408)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6.3	6.3	6.7	6.1	6.3	6.2
	의료 서비스 범위	5.9	5.6	5.9	5.7	5.3	5.2
	의료 서비스 수준	5.9	5.7	5.9	5.8	5.3	5.5
	분만 의료 서비스	5.0	4.8	4.6	4.5	4.3	4.4
	신속한응급 의료서비스	5.7	5.4	5.5	5.6	4.9	4.9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5.9	5.6	5.7	5.9	5.3	5.4
	아동 양육보호 지원	5.8	5.4	5.4	5.6	5.1	5.3
	취약계층 복지 지원	5.9	5.5	5.5	5.8	5.4	5.1
	농어작업 안전 (종사자만)	6.5	-	-	6.5	-	-
	평균	5.8	5.5	5.7	5.6	5.2	5.2

주: 보건·복지 부문의 평균 점수는 '농어작업 안전'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는 남녀 모두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기타 직군의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교육·문화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5.8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5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5.5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5.8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4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5.3점으로 나타났다.
- 세부 여건 중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서 직군 간 격차가 0.6점, 여성의 경우 '문화 공동체 활동'에서 직군 간 격차가 0.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11〉 성별·직업별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3)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3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61)	농림어업 (n=335)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49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408)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6.3	6.1	6.2	6.3	6.0	6.0
	방과 후 교육 기회	5.8	5.8	5.9	5.9	5.9	5.8
	평생교육 기회	5.8	5.3	5.4	5.9	5.3	5.2
	지역사회 연계 교육	5.7	5.1	5.1	5.7	5.0	4.8
	문화·여가 시설	5.6	5.5	5.7	5.6	5.3	5.2
	문화·여가 프로그램	5.7	5.4	5.3	5.6	5.1	5.1
	문화 공동체 활동	5.8	5.3	5.2	5.7	4.9	5.0
	지역 향토문화 기회	6.1	5.7	5.6	6.1	5.4	5.5
	평균	5.8	5.5	5.5	5.8	5.4	5.3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타 부문과 달리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종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 모두 농림어업 종사자의 ‘난방 인프라’ 만족도 점수가 확연히 낮았다.

- 남성의 정주기반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6.3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6.4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6.2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6.2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6.3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6.2점으로 나타났다.
- 세부 여건 중 ‘난방 인프라’에 대한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난방 비용’은 직군에 상관없이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4-12〉 성별·직업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3)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3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61)	농림어업 (n=335)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49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408)
정주 기반	대중교통	6.0	5.6	5.7	5.9	5.5	5.4
	통신시설	6.7	7.1	7.0	6.5	7.1	7.0
	생활 인프라	6.5	6.9	6.8	6.6	6.8	6.7
	난방 인프라	5.5	6.3	6.2	5.5	6.4	6.2
	난방 비용	5.2	5.6	5.2	5.1	5.4	5.3
	생활 서비스	6.0	6.1	6.1	5.9	5.9	6.0
	식자재 구입	6.2	6.5	6.6	6.1	6.4	6.4
	다양한 외식 장소	5.9	6.0	6.0	5.9	6.1	6.0
	주택 상태	6.3	6.3	6.2	6.2	6.4	6.4
	교통안전	6.5	6.2	6.4	6.6	6.2	6.2
	자연재해 안전	6.6	6.6	6.1	6.8	6.4	6.4
	범죄 안전	6.7	6.7	6.4	6.8	6.6	6.6
	적은 환경오염	6.6	6.5	6.2	6.5	6.2	6.1
	정돈된 환경·경관	6.8	6.6	6.4	6.9	6.5	6.4
	평균	6.3	6.4	6.2	6.2	6.3	6.2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남녀의 만족도가 같은 수준이었으며, 비농림어업(사무직 등)과 기타 직군의 경우 남성의 만족도가 소폭 높았다.

- 남성의 경제·일자리 평균 만족도는 농림어업 종사 5.9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5.0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9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 5.9점,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4.7점,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7점으로 나타났다.
- 세부 여건 중 만족도 수준이 비슷한 농림어업 직군에서도 ‘일자리 용이성’ 및 ‘일자리 충분성’ 등 구직 활동에 관한 여건의 남성 만족도가 소폭 높았고, 비농림어업 및 기타 직군에서는 구직 관련 남녀 간 격차가 더욱 커져 여성 비농림어업 직군의 구직 활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표 4-13〉 성별·직업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성별	구분	남성			여성		
		농림어업 (n=463)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63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161)	농림어업 (n=335)	비농림어업 (사무직 등) (n=498)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408)
경제 ·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5.6	4.8	4.6	5.4	4.4	4.2
	일자리 충분성	5.7	4.5	4.3	5.6	4.1	4.1
	충분한 소득	5.8	5.1	4.9	5.7	4.8	4.9
	물가 수준 적절성	5.8	5.0	4.9	5.9	4.7	4.7
	일자리 지원	5.8	4.9	4.7	5.7	4.5	4.5
	로컬푸드 판매	6.3	5.4	5.4	6.3	5.3	5.4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6.1	5.1	5.2	6.0	4.7	4.9
	다문화주민경제활동지원	6.1	5.2	5.2	6.0	5.1	5.1
	여성농업인경제활동지원	6.2	5.2	5.2	6.2	4.8	5.0
	평균	5.9	5.0	4.9	5.9	4.7	4.7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직업군별·연령별 만족도 분석

○ 직군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모든 직군에서 5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기타 직군에서 50대 만족도가 6.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40대 이하, 70대 이상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농림어업 직군에서도 50대의 만족도가 5.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타 연령대와 차이가 크지 않고 만족도가 비교적 고르게 높았다. 비농림업 직군에서는 40대 이하와 6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4-14〉 직업군별·연령별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158)	50대 (n=164)	60대 (n=239)	70대 이상 (n=237)	40대 이하 (n=658)	50대 (n=292)	60대 (n=165)	70대 이상 (n=21)	40대 이하 (n=299)	50대 (n=86)	60대 (n=98)	70대 이상 (n=86)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6.3	6.4	6.3	6.0	6.1	6.7	6.5	6.0	6.1	7.0	7.0	5.8
	의료서비스 범위	5.8	6.0	5.9	5.7	5.3	5.8	5.4	5.2	5.1	6.2	6.2	4.8
	의료서비스 수준	5.9	6.1	5.9	5.7	5.4	5.7	5.5	5.4	5.3	6.1	6.2	5.3
	분만 의료서비스	5.1	4.9	4.9	4.4	4.7	4.8	3.9	4.0	4.4	5.5	4.3	3.7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5.7	5.8	5.7	5.5	5.0	5.5	5.3	5.5	4.8	5.5	5.5	4.9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8	6.0	6.0	5.8	5.2	5.9	5.5	6.1	5.2	6.2	5.9	5.4
	아동 양육 보호 지원	5.7	6.0	5.8	5.4	5.1	5.7	5.1	5.8	5.1	6.0	5.7	4.8
	취약계층 복지 지원	5.8	5.9	5.9	5.7	5.3	5.9	5.5	6.1	4.9	5.9	5.7	5.4
	농어작업 안전	6.3	6.5	6.7	6.3	-	-	-	-	-	-	-	-
	평균	5.8	5.9	5.8	5.5	5.3	5.7	5.3	5.5	5.1	6.0	5.8	5.0

주: 보건·복지 부문의 평균 점수는 '농어작업 안전성'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된 결과임.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중 50대, 6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60대에서 동일 연령대 내 직군 간 격차가 가장 컸다.

- 50대, 60대 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6.0점이며, 60대 비농림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5.1점으로 0.9점 차이가 나타나 동일 연령대 내에서 직군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세부 여건 중 '문화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서 1.2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5〉 직업군별·연령별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158)	50대 (n=164)	60대 (n=239)	70대 이상 (n=237)	40대 이하 (n=658)	50대 (n=292)	60대 (n=165)	70대 이상 (n=21)	40대 이하 (n=299)	50대 (n=86)	60대 (n=98)	70대 이상 (n=86)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6.2	6.4	6.6	6.1	6.0	6.3	5.8	6.0	6.0	6.6	6.5	5.2
	방과 후 교육 기회	5.7	5.9	6.1	5.6	5.8	6.2	5.6	5.4	5.8	6.2	6.2	5.2
	평생교육 기회	5.7	5.9	6.0	5.7	5.3	5.7	5.0	4.7	5.1	5.6	5.6	5.1
	지역사회 연계 교육	5.6	5.9	5.8	5.4	5.1	5.3	4.6	4.3	4.8	5.1	5.1	4.8
	문화·여가 시설	5.7	5.6	5.8	5.2	5.3	5.7	5.3	4.5	5.1	6.0	5.8	5.1
	문화·여가 프로그램	5.6	5.7	5.8	5.5	5.2	5.6	4.9	4.6	5.0	5.5	5.5	5.2
	문화공동체 활동	5.7	5.9	6.0	5.5	5.1	5.5	4.8	4.9	4.8	5.4	5.3	5.2
	지역 향토 문화 기회	5.6	6.3	6.1	6.1	5.6	5.9	5.1	5.3	5.2	5.8	5.6	6.0
	평균	5.7	6.0	6.0	5.6	5.4	5.8	5.1	5.0	5.2	5.8	5.7	5.2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난방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비농림어업 종사자와 기타 직군의 40대 이하 연령층은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5.3점, 5.1점으로 가장 낮았다.

- 농림어업 종사자 내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5.4점으로 가장 낮았고, 60대와는 0.9점의 격차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40대 이하 연령층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16〉 직업군별·연령별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158)	50대 (n=164)	60대 (n=239)	70대 이상 (n=237)	40대 이하 (n=658)	50대 (n=292)	60대 (n=165)	70대 이상 (n=21)	40대 이하 (n=299)	50대 (n=86)	60대 (n=98)	70대 이상 (n=86)	
정주 기반	대중교통	5.4	6.0	6.3	6.0	5.3	5.9	5.5	6.7	5.1	6.0	5.7	6.2
	통신시설	6.6	6.6	6.9	6.2	6.9	7.4	7.3	6.7	7.0	7.5	7.1	6.7
	생활 인프라	6.4	6.5	6.6	6.5	6.6	7.2	6.9	7.4	6.3	7.3	7.1	7.0
	난방 인프라	5.6	5.7	5.8	4.9	6.5	6.6	5.8	4.1	6.3	6.9	6.5	5.0
	난방 비용	5.3	5.3	5.4	4.8	5.6	5.7	4.8	4.0	5.4	5.4	5.2	4.8
	생활 서비스	5.9	6.1	6.2	5.7	5.9	6.3	5.9	6.0	5.9	6.5	5.9	5.9
	식자재 구매	6.2	6.3	6.3	5.9	6.4	6.7	6.3	5.9	6.4	7.0	6.5	6.0
	다양한 외식 장소	5.6	6.1	6.1	5.7	6.0	6.4	5.9	5.4	5.8	6.5	5.9	6.0
	주택 상태	6.1	6.5	6.4	6.2	6.3	6.6	6.1	6.2	6.1	6.8	6.6	6.5
	교통안전	6.3	6.5	6.6	6.6	6.1	6.4	6.2	7.0	5.9	6.6	6.4	7.1
	자연재해 안전	6.4	6.6	6.9	6.8	6.3	6.9	6.5	7.4	5.9	6.7	6.7	7.0
	범죄 안전	6.5	6.6	6.9	6.8	6.5	6.9	6.6	7.1	6.1	6.8	6.8	7.1
	적은 환경오염	6.4	6.4	6.7	6.7	6.2	6.7	6.3	7.4	5.6	6.6	6.7	7.2
	정돈된 환경경관	6.8	6.7	6.8	7.0	6.4	6.9	6.4	7.2	5.9	6.8	6.7	7.3
	평균	6.1	6.3	6.4	6.1	6.2	6.6	6.2	6.3	6.0	6.7	6.4	6.4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만족스런 소득을 얻기 어렵고 일자리 선택지도 다양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농림어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농림어업 종사 직군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비농림어업 종사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70대 이상 비농림어업 종사자의 일자리 용이성(3.5점), 일자리 충분성(3.3점) 점수가 낮아 타 직군과 비교해 구직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반면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40대 이하 젊은 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지만 타 직군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의 만족도가 6.1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은 은퇴 연령이지만, 정년이 없는 농림어업 특성상 60대와 70대 이상의 만족도 또한 각각 5.9점, 5.8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비농림어업 종사자에 비해 1.4점씩 높아 농어촌 지역 내에서 경제적 여건에 대한 직군 간 만족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4-17〉 직업군별·연령별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농림어업				비농림어업(사무직 등)				주부, 학생, 퇴직, 기타				
	40대 이하 (n=158)	50대 (n=164)	60대 (n=239)	70대 이상 (n=237)	40대 이하 (n=658)	50대 (n=292)	60대 (n=165)	70대 이상 (n=21)	40대 이하 (n=299)	50대 (n=86)	60대 (n=98)	70대 이상 (n=86)	
경제 ·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5.4	5.9	5.7	5.2	4.7	4.7	4.1	3.5	4.2	4.8	4.2	4.3
	일자리 충분성	5.4	5.9	5.7	5.6	4.4	4.4	4.1	3.3	3.9	4.5	4.0	4.6
	충분한 소득	5.7	5.9	5.8	5.8	5.1	4.9	4.5	4.4	4.8	5.1	4.7	5.0
	적절한 물가수준	5.7	6.1	5.9	5.7	5.1	4.9	4.5	4.1	4.6	5.2	4.6	5.0
	일자리 지원	5.5	6.1	5.9	5.6	4.8	4.8	4.3	4.4	4.4	4.9	4.5	4.8
	로컬푸드 판매	6.1	6.3	6.4	6.3	5.5	5.4	4.8	5.3	5.2	5.8	5.2	5.9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7	6.3	6.1	6.1	5.0	5.0	4.7	4.4	4.6	5.0	5.1	5.8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지원	5.8	6.2	6.1	6.0	5.2	5.3	4.7	5.5	4.9	5.1	5.2	5.8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지원	5.9	6.3	6.5	6.0	5.0	5.2	4.8	5.0	4.8	5.1	5.2	5.7
	평균	5.7	6.1	6.0	5.8	5.0	5.0	4.5	4.4	4.6	5.1	4.7	5.2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 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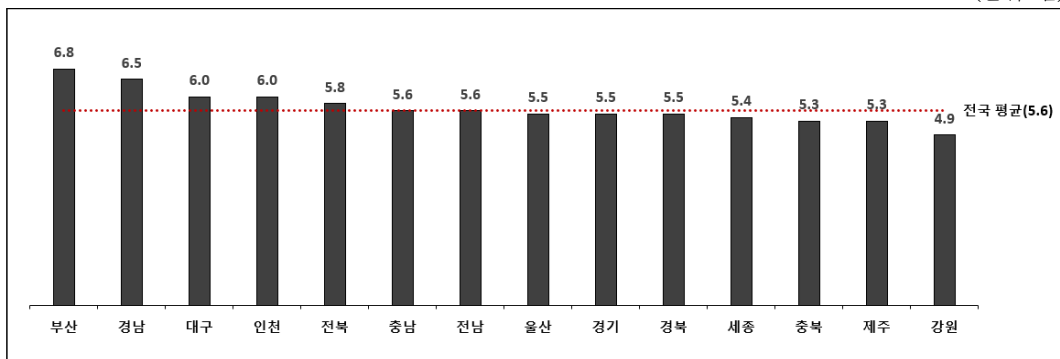
3.1. 시·도별 만족도 분석¹¹⁾

○ 농어촌 지역의 전국 평균인 5.6점보다 높은 시·도는 5개 지역이며, 7개 지역에서 전국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대 부문 평균 점수는 부산(6.8점), 경남(6.5점), 인천(6.0점), 대구(6.0점), 전북(5.8점)에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4.9점)과 충북(5.3점), 제주(5.3점) 지역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 시·도별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 평균 만족도

(단위: 점)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농어촌 지역 4대 부문별 점수는 정주기반(6.3점), 보건복지(5.5점), 교육문화(5.6점), 경제·일자리(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은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충북은 교육·문화, 경제·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에서는 모든 부문이 부문별 점수의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 한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속한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집중되는 다양한 인프라

11) 시·도별 세부 여건의 전체 만족도 점수 도출 결과는 〈부록3〉에 수록하였음.

라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농어촌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18〉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시도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부문 평균
부산	7.0	6.8	7.4	5.9	6.8
대구	6.2	5.7	7.0	5.2	6.0
인천	6.0	6.5	6.2	5.4	6.0
울산	5.5	5.3	6.0	5.0	5.5
세종	5.5	5.3	6.1	4.7	5.4
경기	5.6	5.3	6.3	4.9	5.5
강원	4.8	5.1	5.8	4.1	4.9
충북	5.2	5.1	6.0	4.8	5.3
충남	5.5	5.5	6.1	5.1	5.6
전북	5.1	6.3	5.6	6.2	5.8
전남	5.5	5.2	6.2	5.5	5.6
경북	5.4	5.2	6.2	5.1	5.5
경남	6.5	6.5	6.9	6.1	6.5
제주	5.4	5.3	6.1	4.4	5.3
전국	5.5	5.6	6.3	5.2	5.6

주 1) 부문별 만족도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2) 읍·면 지역이 없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2. 읍·면 지역별 만족도 분석¹²⁾

○ 농어촌 지역을 읍 지역과 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경우, 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삶의 질 정책 4대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6.0점, 면 지역 5.7점으로 근소한 만족도 격차가 나타났다.

- 읍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는 면 지역과 비교해 각각

12) 읍·면 지역 비교에서는 ‘농어작업 안전성’, ‘여성농업인 지원’ 등 농어업인, 농어촌 지역 대상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도·농 비교 시 평균값과는 차이가 있다.

0.4점, 0.3점, 0.6점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일자리 부문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면 지역이 0.1점 높게 나타났다.

〈표 4-19〉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읍·면별 만족도 비교

(단위: 점)

구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전체 평균
읍 지역	5.8	5.7	6.6	6.1	6.0
면 지역	5.4	5.4	6.0	6.2	5.7
읍·면 차이 (읍-면)	0.4	0.3	0.6	-0.1	0.3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보건·복지 부문의 읍·면 지역 간 주민 만족도는 의료 서비스 관련 여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 안에서도 면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읍·면 지역별 보건·복지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8점, 면 지역 5.4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0.7점으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 부문 중 보건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가 0.5점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여건이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지만, 특히 면 지역의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0〉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아동 양육 돌봄 지원	취약 계층 복지 지원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	전체 평균
읍 지역	6.7	5.8	5.9	4.8	5.5	5.8	5.6	5.7	6.5	5.8
면 지역	5.9	5.3	5.4	4.4	5.1	5.5	5.2	5.4	6.4	5.4
읍·면 차이 (읍-면)	0.8	0.5	0.5	0.4	0.4	0.3	0.4	0.4	0.2	0.4

주: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농어작업 안전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t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교육·문화 여건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이 읍 지역 주민과 비교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지역별 교육·문화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7점, 면 지역 5.4점으로 나타났다.
- 세부 항목 중 '방과 후 교육 기회',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0.5점으로 면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 방과 후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1〉 교육·문화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 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전체 평균
읍 지역	6.3	6.1	5.6	5.3	5.7	5.6	5.4	5.8	5.7
면 지역	6.0	5.6	5.4	5.2	5.2	5.2	5.2	5.6	5.4
읍·면 차이 (읍-면)	0.3	0.5	0.2	0.1	0.5	0.4	0.1	0.1	0.3

주: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 문화 기회' 문항의 t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정주기반 여건은 면 지역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주기반 중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과 난방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역별 정주기반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6.6점, 면 지역 6.0점으로 나타났다.

-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 중 '난방 인프라', '난방 비용', '식자재 구입' 등 생활 서비스 수준과 관련된 항목의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0.8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정주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인프라	난방인프라	난방비용	생활서비스	식자재구입	다양한외식장소	주택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안전	범죄안전	적은환경오염	정돈된환경경관	전체평균
읍 지역	5.8	7.3	7.1	6.9	5.7	6.4	6.8	6.4	6.6	6.4	6.7	6.7	6.5	6.7	6.6
면 지역	5.5	6.6	6.4	5.3	5.0	5.6	6.0	5.6	6.1	6.2	6.4	6.5	6.3	6.6	6.0
읍·면 차이(읍-면)	0.4	0.7	0.7	1.6	0.8	0.8	0.9	0.8	0.6	0.2	0.3	0.2	0.2	0.1	0.6

주: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정돈된 환경 경관'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t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경제·일자리 부문의 읍·면 지역 간 만족도 점수는 면 지역의 점수가 근소하게 높아 농어촌 지역의 경제·일자리 여건이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지역별 경제·일자리 부문의 평균 만족도는 읍 지역 5.1점, 면 지역 5.2점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면 지역이 읍 지역보다 경제·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일자리 항목 중 '일자리 충분성',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3〉 경제·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읍·면 지역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구분	일자리용이성	일자리충분성	충분한소득	일자리지원	로컬푸드판매	관광자원및산업활성화	다문화주민경제활동지원	여성농업인경제활동지원	전체평균
읍 지역	4.8	4.6	5.2	5.0	5.6	5.2	5.4	5.3	5.1
면 지역	4.9	4.8	5.2	5.0	5.7	5.4	5.5	5.5	5.2
읍·면 차이(읍-면)	-0.1	-0.2	0.0	0.0	-0.1	-0.2	-0.1	-0.2	-0.1

주: 만족도 점수의 읍·면 간 비교 시 '일자리 충분성',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문항의 t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여 읍·면 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4.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 여건

○ 농어촌 지역의 난방비 및 난방 여건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정기조사로 난방 여건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 정주 만족도 조사의 4대 부문 중 정주기반 부문에서 '난방 인프라'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도시 지역과의 '난방 인프라'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난방 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거주 주택 유형, 주사용 난방 연료, 월평균 난방비, 난방 여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도시 지역 난방 여건과의 격차 수준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내(읍·면 지역 간) 난방 여건 격차를 함께 파악하여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과 농어촌 지역 내 난방 여건 격차를 함께 살펴보았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난방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격차(1.8점)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격차(0.9점)보다 2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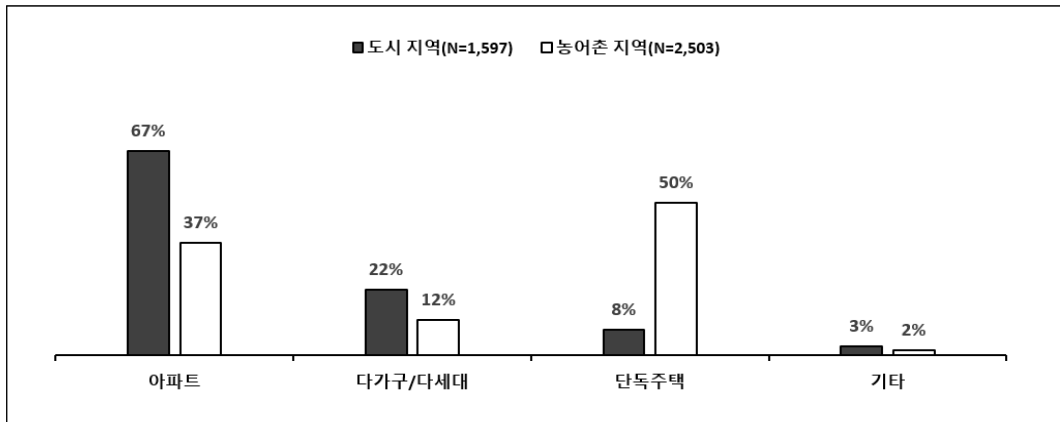
- 정주기반 전략의 세부 항목 중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 점수는 각각 7.6점, 6.7점으로 도·농간 격차가 0.9점이었으나, '난방 인프라' 점수는 각각 7.8점, 6.0점으로 1.8점의 격차가 나타났다(〈표 3-7〉 참조).
-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난방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2점, 5.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1. 난방 여건

○ 난방 여건을 파악하기에 앞서 거주 주택 유형을 확인했다. 도시 지역 주민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으나, 농어촌 주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거주 주택 유형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은 대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다.

〈그림 4-2〉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거주 주택 유형



자료: 저자 작성.

○ 현재 사용 중인 난방 방식과 그에 따른 주사용 난방 연료를 설문한 결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 비율이 도시 지역에서는 61.1%였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39.6%에 불과했다.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주사용 난방 연료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이용률이 39.6%로 가장 높았고, 등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 이용률이 26.5%, 태양광을 포함한 전기 이용률이 8.6%, 개별 LPG가 6.2% 순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 도시 지역 주민의 주사용 난방 연료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61%, 지역난방 17%, 중앙난방 14% 등 저비용 연료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4〉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연료

(단위: %)

구분	중앙난방	지역난방	도시가스	LPG 배관망	개별 LPG	등유	전기 (태양광 포함)	기타
도시 지역	13.6	16.9	61.1	2.1	1.3	2.2	2.2	0.7
농어촌 지역	4.2	6.8	39.6	3.9	6.2	26.5	8.6	4.2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도시 지역 주민이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로 약 13.7만 원을 부담하며, 농어촌 주민은 약 17.1만 원을 부담하여 농어촌 주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25%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읍 지역 주민의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15.4만 원, 면 지역 주민은 18.8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추운 지역인 강원(25.8만 원)에서 난방비 부담이 가장 극심했으며, 상대적으로 온화한 부산(10.7만 원) 및 경남(12.3만 원) 지역과 난방비 부담 차이가 컸다. 한편 제주(18.5만 원)는 온난한 기후에 속하지만 도시가스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난방비 부담이 농어촌 지역 평균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후에 따른 특성과 함께 도·농별 지역에 따라 공급된 에너지 공급 인프라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에 대한 에너지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사용 난방 연료 및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거주 지역의 난방 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연료의 가격부담 정도’를 측정하였다. 세 가지 항목 모두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는 각각 4.8점, 5.0점으로 나타났으며, ‘단열 부실 정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두 문항 모두 0.2점의 도·농간 난방 여건 격차가 나타났다.
-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각각 5.0점, 5.7점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주민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5〉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
도시 지역	4.8	5.1	5.0
농어촌 지역	5.0	5.3	5.7
차이	0.2	0.2	0.7

주: 각 항목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그렇지 않다(0점) ~ 그렇다(10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특히 농어촌 지역을 읍 지역과 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면 지역의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간 격차는 도·농간 격차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읍 지역과 면 지역의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는 각각 4.6점, 5.4점으로 0.8점의 격차가 나타나 도·농간 격차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단열 부실 정도'는 각각 5.1점, 5.5점으로 도·농간 격차보다 큰 0.4점 차이가 나타났다.
- 특히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는 5.1점, 6.1점으로 1.0점의 격차가 나타나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주거 환경 및 여건 격차에 따라 난방 여건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읍 지역 및 면 지역의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
읍 지역	4.6	5.1	5.1
면 지역	5.4	5.5	6.1
차이	0.8	0.4	1.0

주: 각 항목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그렇지 않다(0점) ~ 그렇다(10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3.2. 난방 관련 정책 수요

○ 난방 여건 개선 관련 정책의 지원 경험자에 한하여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 여건 개선 정책의 효용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세부 항목 중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주택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각각 3.1점, 3.3점으로 0.2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0.1점의 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 난방 여건 개선 관련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점수가 높은 것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난방 및 주거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용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27〉 난방 여건 개선 관련 정책의 지원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구분	지원 경험 비율		만족도 점수(경험자)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에너지바우처(일반)	9.5	7.0	3.2	3.2
에너지바우처(등유)	5.9	8.8	3.1	3.2
에너지바우처(연탄)	5.8	4.8	3.0	3.1
주택개선사업	6.2	7.2	3.1	3.3
난방시설교체	8.2	6.6	3.2	3.3
LPG소형저장탱크	6.5	5.2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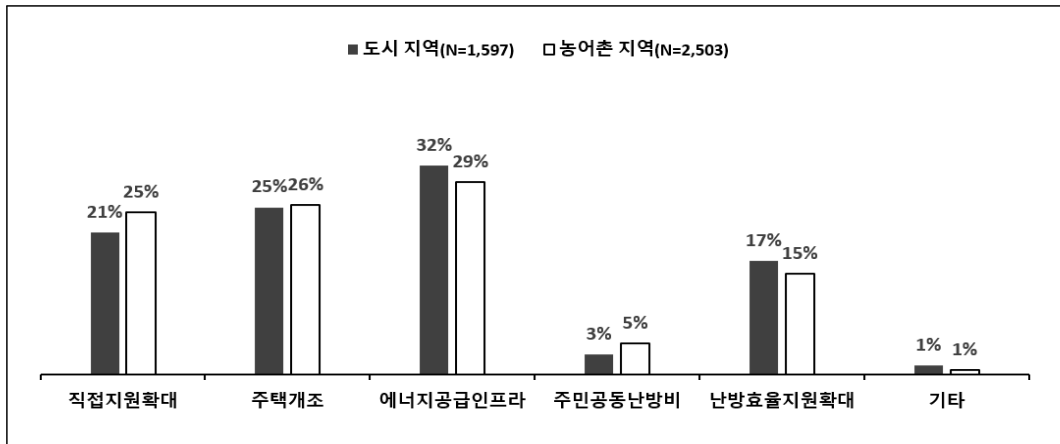
주: 만족(1점) ~ 불만족(5점)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1~5점)를 사용하였으며, 만족도 점수는 역코딩 후 산출함.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 주민과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가 각각 31.6%, 29.0%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단열 성능 개선,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 등을 위한 집 고치기 및 리모델링 지원 확대(주택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도시 25.3%, 농어촌 25.3%)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연료 구입 직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21%, 25%로 조사되었다.

〈그림 4-3〉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자료: 저자 작성.

○ 지역별 주사용 난방연료 및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를 선택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중 비교적 도시화가 진행된 읍 지역의 경우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난방비 부담이 가장 큰 면 지역의 경우 단열 성능 개선,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 등과 관련된 ‘주택 개조 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표 4-28〉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에너지바우처 등 직접지원 확대	주택 개조 사업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	주민공동 난방비 지원	난방 효율 지원 확대	기타
도시 지역	21.5	25.3	31.6	3.1	17.2	1.4
농어촌 지역	24.6	25.6	29.0	4.8	15.3	0.7
읍 지역	26.2	22.5	30.9	3.8	15.9	0.7
면 지역	23.1	28.6	27.3	5.7	14.8	0.6

자료: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 난방비는 에너지 접근성뿐만 아니라 난방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면 지역은 읍 지역에 비해 주민 연령대가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이 많다. 이에 대규모 자본의 투입과 시간이 소요되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보다, 소요 시간이 짧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개조 사업의 수요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주거 환경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큰 농어촌 지역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지원 정책과 아울러 주택 개선 사업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난방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는 등 동시다발적 정책적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결론

1. 조사 결과 요약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를 살펴보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보다 점수가 개선되었다. 도·농 간 점수를 비교해보면,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 인식’ 항목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소폭 높았으나, ‘마을 및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 더 높았다.
- ‘주관적 웰빙’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도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정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개선되었으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정적 정서(‘어제의 근심/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는 전년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만족도 점수의 일부를 상쇄시켰다.
- ‘공동체 및 지역사회 만족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나 도시 지역 주민의 경우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항목에서만 소폭 개선되었다.

○ 4대 부문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4개 부문 모두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개선되었으며, 도시 지역 주민의 경우 교육·문화 부문과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는 하락하였다.

- 4대 부문별 도·농 만족도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특히 연도별 격차가 등락을 반복했던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반면 보건·복지 부문 및 정주기반 부문은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관련 항목에서 만족도 격차가 컸는데, 특히 '분만 의료 서비스' 항목에서 도·농간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난방 인프라' 여건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중교통', '생활 서비스', '다양한 외식 장소'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여전히 만족도 격차가 크게 유지되고 있었다.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타 부문과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부문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른 만족도 차이도 존재했다. 특히 모든 부문에서 40대 이하 연령층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 4대 부문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40대 이하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의료서비스 관련 만족도에서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40대 이하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관련 만족도가 낮았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난방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

졌다. 반면,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7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고, 40대 이하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4개 부문 모두 남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층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더 낮았고,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는 남성의 만족도가 소폭 낮았다. 특히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고령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다.
- 또한 정주기반 부문에서 읍·면간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난방 인프라’ 항목은 도·농간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난 항목인데, 읍·면간 격차도 크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의 난방 여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4대 부문 모두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와 관련한 비정기조사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난방 여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난방시설, 단열, 난방비 등 여러 측면에서 농어촌 주민의 난방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은 도·농간 격차보다 읍·면간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읍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면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및 여건 격차에서 기인한다.
- 아울러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 지역 및 읍 지역에서는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에너지 공급 인프라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면 지역에서는 단열 성능 개선, 노후화된 난방시설 교체 등에 관한 ‘주택 개조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시사점

-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부문에 따른 여건의 평균 점수는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개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주관적 웰빙 만족도’에서 도시 지역의 부정적 정서가 개선된 것에 반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도시 지역에서 부정적 정서가 농어촌 지역보다 심각한 점수이지만, 농어촌 지역 또한 부정적 정서가 악화되고 있어 이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대 부문 중 보건·복지 부문과 정주기반 부문의 도·농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정주 만족도 조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4대 부문별 만족도에서 문화·교육 부문의 격차가 줄어들고,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역전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보건·복지 및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보건·복지 부문은 과년도 조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부문이며, IPA 분석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 중요도 및 만족도가 낮아 타 부문에 비해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의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 의료 서비스 범위 및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도 도·농간 만족도 격차가 확대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IPA 분석에서 농어촌 지역 정주기반 부문이 타 부문과 비교해 만족도가 높아 현상유지 영역에 포함되었는데, 도시의 정주기반 부문과 비교 시 여전히 중요도 및 만족도가 저조하다. 특히 ‘난방 인프라’,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농어촌 지역 거주자의 불편함이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은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문화 부문을 함께 살펴볼 때, ‘분만 의료 서비스’, ‘방과 후 교육 시설’,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 출산 및 자녀 교육 관련 여건에서 도시 지역과의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저출생,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촌 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료와 자녀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 이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정주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 정주 만족도와 이주 의향이 인구 유출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4대 전략별 만족도 등 모든 정주 만족도 항목에서 이주 의향이 없는 주민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일자리 전략에서 이주 의향에 따른 만족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주 의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정주 만족도에 있어서 도·농간 만족도 격차도 존재하지만, 농어촌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읍 지역과 그렇지 못한 면 지역 간 만족도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 내 불균형 해소와 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에 있어서는 면 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나, 4대 부문 모두에서 면 지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읍·면간 만족도 격차가 도·농간 격차 크기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도·농간 만족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특히 면 지역은 낮은 인구밀도, 지리적 여건 등 도시 및 읍 지역에 비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사회적·지리적 특성이 있지만, 면 지역 거주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난방 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및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노후 시설 및 주택의 개선사업 등과 함께 추진하여 실질적인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 ‘난방 인프라’에 대한 도·농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세부 여건 중 ‘난방비 부담 정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석유 보일러 등 개별 난방 비율이 높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저렴한 에너지 접근성에 따른 도·농간 차이는 난방비 지출 격차로 이어지며, 농어촌 지역의 가계 부담으로 직결된다. 난방비는 거주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에 크게 영향받으므로 난방 여건 중 격차가 큰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 농어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산간지대·해안가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원 공급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므로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은 난방 여건 중 노후화된 난방설비와 노후주택 거주 등으로 인해 단열·난방 효율이 낮다.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묻는 문항에서 도시 및 읍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면 지역에서는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 개선 사업’과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한 비율이 비슷하다. 따라서 난방 여건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난방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PART A. 정주 여건 및 만족도

Q01. 귀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시/군/구: () 읍/면/동: () 리(행정리): ()

※ 행정구역명까지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 임실 관촌 슬치 X,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O

Q02. 귀하께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 년

Q03.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전반적인 삶에 대한 생각	그렇지 않다	\longleftarrow	보통	\longrightarrow	그렇다						
1. 귀하는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2. 귀하는 어제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3. 귀하는 어제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4. 귀하는 어제 우울하셨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Q04.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	그렇지 않다	\longleftarrow	보통	\longrightarrow	그렇다						
1. 나는 지금 행복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3.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4. 우리 시 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지금 건강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Q05. 다음은 공동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공동체에 대한 생각	그렇지 않다	\longleftarrow	보통	\longrightarrow	그렇다						
1. 나는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2. 나는 이웃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느끼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거주하는 지역(시·군 또는 읍·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신뢰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4. 나는 거주하는 지역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당,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동창회, 향우회, 자원봉사단체 등)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거주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 주민들이 왕래 또는 이주하는 것에 우호적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거주 지역 외에 다양한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어울린다 (예: 네이버 밴드,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0	1	2	3	4	5	6	7	8	9	10

Q06.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 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2.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과목 이 다양하다	0-1-2-3-4-5-6-7-8-9-10
3.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 이 양호하다	0-1-2-3-4-5-6-7-8-9-10
4. 입신 및 출산 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5.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7. 아동의 양육·돌봄을 위한 지원 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8. 취약계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9. (농어업 종사자만 응답) 농기계·어선 사고 등 농어작업 재해 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0-1-2-3-4-5-6-7-8-9-10

Q07.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교육·문화 분야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교육·문화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 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2.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 (방과후학교, 사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3.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 가 충분하다	0-1-2-3-4-5-6-7-8-9-10
4.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교육활동(대학생 멘토링, 마을교사 활동 등)이 잘 이뤄진다	0-1-2-3-4-5-6-7-8-9-10
5.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 을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6.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 잘 마련되어 있다	0-1-2-3-4-5-6-7-8-9-10
7. 동호회, 소모임 등 주민들의 문화공동체 활동 이 활발하다	0-1-2-3-4-5-6-7-8-9-10
8.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 를 충분히 접할 수 있다	0-1-2-3-4-5-6-7-8-9-10

Q8.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정주기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정주기반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0-1-2-3-4-5-6-7-8-9-10
2.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0-1-2-3-4-5-6-7-8-9-10
3.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0-1-2-3-4-5-6-7-8-9-10
4. 도시가스, LPG 등 난방(또는 에너지)인프라가 양호하다	0-1-2-3-4-5-6-7-8-9-10
5. 연간 지출되는 난방비가 적절하다	0-1-2-3-4-5-6-7-8-9-10
6.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0-1-2-3-4-5-6-7-8-9-10
7. 편의점, 마트 등에서 양질의 식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0-1-2-3-4-5-6-7-8-9-10
8. 카페, 식당 등 외식을 할 수 있는 가게가 다양하다	0-1-2-3-4-5-6-7-8-9-10
9.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0-1-2-3-4-5-6-7-8-9-10
10.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11. 마을 혹은 거주지 주변이 태풍,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다	0-1-2-3-4-5-6-7-8-9-10
12.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0-1-2-3-4-5-6-7-8-9-10
13. 쓰레기, 분뇨, 폐수, 매연, 악취 등 환경오염이 적다	0-1-2-3-4-5-6-7-8-9-10
14. 마을 환경과 경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0-1-2-3-4-5-6-7-8-9-10

Q09.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경제·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0점~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거주 지역의 경제·일자리 분야 생활여건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1. 시간제, 임시직 등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	0-1-2-3-4-5-6-7-8-9-10
2. 우리 지역에는 일자리 및 일거리가 충분하다	0-1-2-3-4-5-6-7-8-9-10
3. 일한 것에 대해 충분한 소득을 받을 수 있다	0-1-2-3-4-5-6-7-8-9-10
4. 지역내 생필품 물가수준이 적절하다	0-1-2-3-4-5-6-7-8-9-10
5.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6. 특산품이나 농수산물 가공·판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0-1-2-3-4-5-6-7-8-9-10
7. 우리 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있다	0-1-2-3-4-5-6-7-8-9-10
8. 다문화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9. (읍면지역만 응답) 여성 농업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0-1-2-3-4-5-6-7-8-9-10

DQ04. 귀하의 주된 일터(장소)는 현재 사시는 지역과 다른 지역(시군)입니까?

- 1) 예 2) 아니오

DQ05. 귀덕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DQ06. 귀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체크)

- 1) 귀농 2) 귀촌 3) 둘 다 아니다

※ 농림어업을 하려고 농촌지역(읍면 지역)으로 들어온 경우에 귀농에 해당합니다.

※ 농림어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농촌지역(읍면 지역)으로 들어온 경우에 귀촌에 해당합니다.

DQ07. 귀덕(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덧밭 등 취미농 제외)

- 1) 있다 2) 없다

DQ08. 귀하께서는 현재 사시는 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DQ08-1. (다른 거주지가 있는 경우) 별도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 1) 해당 시군의 농촌지역 2) 해당 시군의 도시지역 3) 다른 시군의 농촌지역 4) 다른 시군의 도시지역

DQ09. 귀덕에서 동거하는 가구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1) 독신가구 ⇨ DQ10 문항으로
- 2) 1세대 가구(부부) ⇨ DQ10 문항으로
- 3) 2세대 가구(부부+자녀) ⇨ DQ09-1번 문항으로
- 4)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 DQ09-1번 문항으로
- 5)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DQ09-1번 문항으로
- 6) 기타() ⇨ DQ09-1번 문항으로

DQ09-1. 귀 덕에는 성인이 아닌(0~19세) 자녀나 손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 DQ09-2번 문항으로 2) 없다 ⇨ DQ10번 문항으로

DQ09-2. 미성년 자녀의 연령대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복수응답)

- 1) 영유아 2) 초등학교 3) 중·고등학교 4) 기타()

DQ10. 귀덕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년간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 1) 1,000만 원 미만 2) 1,000만 원-1,999만 원 3) 2,000만 원-2,999만 원
- 4) 3,000만 원-3,999만 원 5) 4,000만 원-4,999만 원 6) 5,000만 원-6,999만 원
- 7) 7,000만 원-9,999만 원 8) 1억 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2021~2023년 도·농 정주 만족도 추이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부문별 만족도 점수〉

(단위: 점)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보건 · 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7.7	7.7	6.3	6.1	6.3
	의료 서비스 범위	7.3	7.3	7.2	5.6	5.1	5.6
	의료 서비스 수준	7.2	7.2	7.1	5.7	5.3	5.6
	분만의료 서비스	7.0	6.8	6.7	5.2	4.3	4.6
	산후조리 서비스	-	6.4	-	-	4.0	-
	여성 출산 지원	-	6.2	-	-	4.4	-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3	7.0	7.1	5.9	5.2	5.3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8	6.5	6.6	6.0	5.6	5.6
	아동 양육 보호 지원	6.7	6.4	6.4	5.9	5.3	5.4
	취약계층 복지 지원	6.6	6.2	6.2	6.1	5.4	5.5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농어작업 안전(농어업인만)	6.5 5.5	- -	- 6.4	5.9 7.0	- 7.1	- 6.4
(평균)	7.0	6.8	6.9	5.8	5.1	5.5	
교육 · 문화	공교육 수준	6.7	6.8	6.7	5.8	5.8	6.1
	방과 후 교육 기회	6.6	6.7	6.7	5.7	5.6	5.8
	평생교육 기회	6.3	6.2	6.1	5.4	5.1	5.5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3	5.9	5.8	5.4	4.7	5.2
	문화 여가 시설	6.5	6.6	6.4	5.4	5.2	5.5
	문화 여가 프로그램	6.2	6.3	6.1	5.2	5.0	5.4
	문화 공동체 활동	5.9	5.8	5.6	5.2	4.8	5.3
	지역 향토 문화 기회	-	6.0	5.9	-	5.3	5.7
(평균)	6.4	6.3	6.2	5.4	5.2	5.6	
정주 기반	대중교통	7.3	7.2	7.2	5.7	5.3	5.7
	통신시설	7.7	7.8	7.9	6.7	6.9	6.9
	생활 인프라	7.7	7.5	7.6	6.4	6.7	6.7
	난방 인프라	-	-	7.8	-	-	6.0
	난방 비용	-	6.4	6.2	-	5.5	5.3
	생활 서비스	7.6	7.3	7.3	6.2	5.8	6.0
	식자재 구입	-	7.6	7.6	-	6.3	6.4
	다양한 외식 장소	-	7.3	7.3	-	5.8	6.0
	주택 상태	7.0	7.0	7.0	6.4	6.2	6.3
	교통안전	6.8	6.7	6.7	6.4	6.2	6.3
	자연재해 안전	7.3	7.3	7.2	6.7	6.7	6.5

(계속)

구분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응급차량 접근성	7.1	-	-	6.6	-	-
	범죄 안전	6.9	7.0	6.9	6.7	6.7	6.6
	적은 환경오염	6.8	6.9	6.9	6.4	6.4	6.4
	정돈된 환경·경관	6.9	6.9	6.9	6.6	6.5	6.6
	에너지 비용 절감	6.4	-	-	6.1	-	-
	(평균)	7.1	7.1	7.2	6.4	6.2	6.3
경제 ·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소득 기회)	5.7	5.1	4.8	5.2	4.4	4.8
	일자리 충분성	-	5.0	4.7	-	4.3	4.7
	충분한 소득	-	5.4	5.1	-	4.8	5.2
	적절한 물가수준	-	-	5.1			5.2
	경제여건 향상	5.6	-	-	5.3	-	-
	농외소득(농촌만)	-	-	-	5.6	-	-
	농어촌관광(도시만)	5.3	-	-	-	-	-
	일자리 지원	5.6	5.3	5.1	5.3	4.6	5.0
	로컬푸드 판매	-	5.5	5.3	-	5.3	5.7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	5.0	4.8	-	4.9	5.3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	5.2	5.1	-	5.0	5.4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	-	-	-	4.9	5.4
	(평균)	5.6	5.2	5.0	5.3	4.7	5.2
〈표본수〉	〈738명〉	〈855명〉	〈1,597명〉	〈2,445명〉	〈2,370명〉	〈2,503명〉	

3. 2023년 4대 부문별 시·도 지역 정주 만족도 점수

〈보건·복지 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구분	(단위: 점)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범위	의료 서비스 수준	분만 의료 서비스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이동 양육보호 지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농어직업 안전 (농·어업인)	
부산	7.5	7.0	6.7	6.6	6.7	6.9	6.6	6.8	7.9	
대구	7.1	6.4	6.5	5.5	5.7	6.1	5.8	5.8	6.6	
인천	6.4	6.3	6.4	6.0	4.7	6.1	5.9	6.0	5.9	
울산	6.2	5.5	5.4	4.7	5.3	5.5	5.4	5.6	6.3	
세종	6.1	5.7	6.0	4.9	4.8	5.3	5.3	5.3	5.6	
경기	6.5	5.6	5.7	4.9	5.3	5.5	5.3	5.5	6.4	
강원	5.5	4.4	4.7	2.8	5.1	5.3	4.7	5.3	5.4	
충북	6.0	5.0	5.0	4.4	4.7	5.4	5.1	5.3	5.8	
충남	6.2	5.2	5.5	4.8	5.0	5.4	5.2	5.4	6.4	
전북	5.1	4.9	5.0	2.1	5.2	5.4	5.3	5.4	7.3	
전남	6.4	5.7	5.6	4.1	5.0	5.5	5.4	5.5	6.2	
경북	6.2	5.3	5.6	4.8	5.2	5.3	5.2	5.0	5.9	
경남	7.0	6.5	6.5	5.9	6.3	6.4	6.3	6.3	7.3	
제주	6.5	5.5	5.8	4.0	4.3	5.3	5.3	5.4	6.5	
전국 평균	6.3	5.6	5.6	4.6	5.3	5.6	5.4	5.5	6.4	

〈교육·문화 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공교육 수준	방과후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	지역사회 연계 교육	문화·여가 시설	문화·여가 프로그램	문화 공동체 활동	지역 향토문화 기회
부산	7.1	7.1	6.9	6.4	6.9	7.0	6.3	6.8
대구	6.7	6.5	5.7	5.1	5.2	5.3	5.2	5.7
인천	7.0	6.8	6.8	6.6	6.4	6.0	6.3	6.3
울산	6.1	5.8	4.9	5.0	5.1	5.0	5.1	5.2
세종	6.0	5.7	5.2	5.5	5.3	4.8	5.0	5.0
경기	5.8	5.5	5.1	4.8	5.6	5.2	5.0	5.2
강원	5.7	5.4	5.2	4.8	5.0	4.6	5.1	5.4
충북	5.7	5.3	4.9	4.6	4.7	4.8	4.9	5.5
충남	6.1	5.7	5.5	5.3	5.3	5.2	5.1	5.5
전북	6.5	6.4	6.2	6.1	6.3	6.3	6.4	6.3
전남	5.7	5.3	5.0	4.8	5.1	5.1	4.8	5.9
경북	5.9	5.5	5.0	4.8	5.1	5.1	5.1	5.2
경남	6.9	6.8	6.5	6.2	6.3	6.4	6.2	6.6
제주	6.5	6.2	5.3	4.6	4.9	4.4	5.0	5.5
전국 평균	6.1	5.8	5.5	5.2	5.5	5.4	5.3	5.7

〈정주기반 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대중교통	통신시설	생활 인프라	난방 인프라	난방비용	생활 서비스	식자재 구입	다양한 외식 장소	주거 상태	교통안전	자연재해 안전	범죄 안전	적은 환경 오염	정돈된 환경·경관
부산	7.2	7.8	7.8	7.7	6.9	7.6	7.5	7.2	7.3	6.9	7.2	7.3	7.1	7.4
대구	6.2	7.7	7.4	7.4	6.5	6.5	6.8	6.4	7.0	6.9	7.2	7.3	6.8	7.4
인천	5.8	7.1	7.2	4.5	4.1	6.0	6.5	6.0	6.1	6.6	6.9	6.6	6.8	7.0
울산	5.3	6.6	6.6	6.3	5.8	5.8	6.1	5.6	5.9	5.9	6.1	6.3	6.0	5.8
세종	6.1	6.6	6.3	6.1	5.2	5.8	6.2	6.1	6.3	6.2	6.7	6.2	5.7	6.0
경기	5.3	7.2	6.6	6.7	5.4	6.0	6.5	6.1	6.3	6.1	6.6	6.8	6.3	6.4
강원	5.1	6.9	6.9	4.8	4.2	5.1	5.5	5.2	5.9	6.0	6.5	6.5	6.3	6.3
충북	5.4	6.5	6.2	5.7	5.0	5.6	6.1	5.6	5.9	6.3	6.5	6.6	6.0	6.4
충남	5.5	6.9	6.5	5.9	5.3	5.9	6.3	5.9	6.3	6.1	6.3	6.4	6.1	6.4
전북	4.5	5.5	5.5	5.4	5.1	5.3	5.6	5.5	5.6	5.9	6.1	6.4	5.7	6.1
전남	5.9	6.7	6.6	5.1	4.5	5.8	6.3	5.8	6.4	6.4	6.6	6.7	6.5	6.8
경북	5.6	6.8	6.8	6.1	5.3	6.0	6.2	5.8	6.2	6.4	6.3	6.4	6.4	6.6
경남	6.4	7.5	7.2	7.0	6.5	6.8	7.1	6.9	7.0	6.8	6.9	7.0	7.0	7.2
제주	6.3	7.3	6.8	6.0	4.5	6.1	6.6	6.4	6.5	5.6	5.7	6.2	5.5	6.5
전국 평균	5.7	6.9	6.7	6.0	5.3	6.0	6.4	6.0	6.3	6.3	6.5	6.6	6.4	6.6

〈경제·일자리 부문 시·도 지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일자리 용이성	일자리 충분성	충분한 소득	물가 수준 적절성	일자리 지원	로컬푸드 판매	관광산업 및 산업 활성화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부산	5.8	5.5	6.2	5.9	6.0	6.1	6.0	5.9	5.9
대구	5.3	5.1	5.4	5.5	5.2	5.2	4.6	5.2	5.3
인천	4.8	4.7	5.1	5.0	5.0	5.7	6.1	5.7	5.8
울산	4.8	4.6	5.1	5.4	4.8	5.3	4.9	5.0	4.8
세종	4.8	4.4	5.0	5.1	4.7	5.1	4.0	4.8	4.5
경기	4.5	4.4	4.9	4.8	4.8	5.4	4.8	4.9	4.9
강원	3.7	3.2	4.3	3.7	3.8	4.3	3.8	4.6	4.9
충북	4.4	4.3	4.9	4.8	4.6	5.3	4.7	5.0	4.9
충남	4.9	4.8	5.2	5.0	4.9	5.5	5.1	5.1	5.5
전북	5.6	5.8	6.1	6.3	6.0	6.4	6.5	6.6	6.3
전남	4.7	4.7	5.1	5.2	5.1	6.5	6.1	5.8	5.5
경북	4.4	4.5	4.9	5.2	4.7	5.5	5.3	5.3	5.2
경남	5.8	5.6	6.1	6.1	6.0	6.4	6.1	6.3	6.2
제주	4.1	3.6	4.0	4.1	3.7	4.5	5.8	4.4	4.9
전국 평균	4.8	4.7	5.2	5.2	5.0	5.7	5.3	5.4	5.4

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t-검정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도·농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도시	6.0	0.6	-8.906	0.000
		농어촌	6.6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도시	6.2	0.3	-3.796	0.000
		농어촌	6.5			
	마을 발전 전망	도시	6.4	-0.1	1.452	0.142
		농어촌	6.3			
시·군 발전 전망	도시	6.5	0.0	0.632	0.531	
	농어촌	6.4				
주관적 건강상태	도시	6.0	0.4	-6.018	0.000	
	농어촌	6.4				
주관적 웰빙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도시	6.0	0.6	-8.298	0.000
		농어촌	6.6			
	어제의 행복정도	도시	6.1	0.5	-6.554	0.000
		농어촌	6.6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도시	5.5	-0.4	4.806	0.000
		농어촌	5.1			
어제의 우울 정도	도시	4.4	-0.4	4.026	0.000	
	농어촌	4.0				
요즘 하는 일의 전반 적 가치	도시	5.8	0.4	-6.267	0.000	
	농어촌	6.3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도시	5.5	0.5	-7.465	0.000
		농어촌	6.1			
	이웃과의 관계	도시	5.8	0.5	-7.910	0.000
		농어촌	6.4			
	거주지역에 대한 정 책 신뢰도	도시	5.8	0.1	-2.187	0.029
		농어촌	6.0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도시	4.3	0.6	-6.770	0.000
		농어촌	4.9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도시	6.1	0.2	-3.212	0.001	
	농어촌	6.3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교류)	도시	4.6	0.0	-0.287	0.774	
	농어촌	4.6				

주 1) 도시 n=1,597명, 농어촌 n=2,503명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도·농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4대 부문별 만족도의 도·농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도시	7.7	-1.4	20.305	0.000
		농어촌	6.3			
	의료 서비스 범위	도시	7.2	-1.7	23.268	0.000
		농어촌	5.6			
	의료 서비스 수준	도시	7.1	-1.5	21.063	0.000
		농어촌	5.6			
	분만의료 서비스	도시	6.7	-2.1	26.160	0.000
		농어촌	4.6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도시	7.1	-1.8	24.052	0.000
		농어촌	5.3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도시	6.6	-1.0	14.454	0.000	
	농어촌	5.6				
아동 양육보호 지원	도시	6.4	-0.9	13.940	0.000	
	농어촌	5.4				
취약계층 복지 지원	도시	6.2	-0.7	10.518	0.000	
	농어촌	5.5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도시	6.4	0.0	-0.244	0.808	
	농어촌	6.4				
교육·문화	공교육수준	도시	6.7	-0.6	9.087	0.000
		농어촌	6.1			
	방과 후 교육 기회	도시	6.7	-0.8	12.855	0.000
		농어촌	5.8			
	평생교육 기회	도시	6.1	-0.6	8.812	0.000
		농어촌	5.5			
	지역사회 연계 교육	도시	5.8	-0.5	7.747	0.000
		농어촌	5.2			
	문화·여가 시설	도시	6.4	-0.9	12.977	0.000
		농어촌	5.5			
문화·여가 프로그램	도시	6.1	-0.8	10.799	0.000	
	농어촌	5.4				
문화공동체 활동	도시	5.6	-0.3	3.940	0.000	
	농어촌	5.3				
지역 향토문화 기회	도시	5.9	-0.2	2.692	0.007	
	농어촌	5.7				

주 1) 도시 n=1,597명, 농어촌 n=2,503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도·농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정주기반	대중교통	도시	7.2	-1.5	19.855	0.000
		농어촌	5.7			
	통신시설	도시	7.9	-1.0	15.358	0.000
		농어촌	6.9			
	생활 인프라	도시	7.6	-0.9	14.714	0.000
		농어촌	6.7			
	난방 인프라	도시	7.8	-1.7	24.760	0.000
		농어촌	6.0			
	난방비용	도시	6.2	-0.8	10.790	0.000
		농어촌	5.3			
	생활 서비스	도시	7.3	-1.3	18.573	0.000
		농어촌	6.0			
	식자재 구입	도시	7.6	-1.3	19.082	0.000
		농어촌	6.4			
	다양한 외식 장소	도시	7.3	-1.3	18.521	0.000
		농어촌	6.0			
	주택 상태	도시	7.0	-0.7	9.606	0.000
		농어촌	6.3			
	교통안전	도시	6.7	-0.3	5.140	0.000
		농어촌	6.3			
자연재해 안전	도시	7.2	-0.7	10.604	0.000	
	농어촌	6.5				
범죄 안전	도시	6.9	-0.3	4.224	0.000	
	농어촌	6.6				
적은 환경오염	도시	6.9	-0.5	6.896	0.000	
	농어촌	6.4				
정돈된 환경/경관	도시	6.9	-0.3	4.067	0.000	
	농어촌	6.6				
경제·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도시	4.8	0.0	-0.195	0.845
		농어촌	4.8			
	일자리 충분성	도시	4.7	0.0	-0.050	0.960
		농어촌	4.7			
	충분한 소득	도시	5.1	0.1	-0.836	0.403
		농어촌	5.2			
	물가 수준 적절성	도시	5.1	0.1	-1.526	0.127
		농어촌	5.2			
	일자리 지원	도시	5.1	0.0	0.660	0.509
		농어촌	5.0			
	로컬푸드 판매	도시	5.3	0.3	-4.458	0.000
		농어촌	5.7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도시	4.8	0.5	-5.999	0.000	
	농어촌	5.3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도시	5.1	0.4	-4.887	0.000	
	농어촌	5.4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도시	-1.0	6.4	-	-	
	농어촌	5.4				

주 1) 도시 n=1,597명, 농어촌 n=2,503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도·농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5.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t-검정 및 ANOVA 결과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읍·면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항목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읍	6.4	0.2	-2.851	0.004
		면	6.7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읍	6.4	0.1	-1.178	0.239
		면	6.5			
	마을 발전 전망	읍	6.4	-0.1	1.491	0.136
		면	6.2			
시·군 발전 전망	읍	6.5	-0.1	0.985	0.325	
	면	6.4				
주관적 건강 인식	읍	6.4	0.1	-0.826	0.409	
	면	6.4				
주관적 웰빙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읍	6.4	0.3	-3.435	0.001
		면	6.7			
	어제의 행복 정도	읍	6.5	0.2	-1.897	0.058
		면	6.6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읍	5.4	-0.5	4.606	0.000
면		4.9				
어제의 우울 정도	읍	4.2	-0.2	2.202	0.028	
면	3.9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읍	6.1	0.3	-3.237	0.001	
	면	6.4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읍	5.8	0.4	-4.953	0.000
		면	6.3			
	이웃과의 관계	읍	6.1	0.5	-5.985	0.000
		면	6.6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읍	5.8	0.2	-2.775	0.006
		면	6.1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읍	4.6	0.6	-5.172	0.000
면		5.1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읍	6.3	0.0	-0.522	0.602	
	면	6.4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교류)	읍	4.6	0.0	0.431	0.666	
면	4.6					

주 1) 읍 n=1,211명, 면 n=1,292명.

2) 근심/걱정,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읍·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성별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남성	6.6	0.0	0.303	0.762
		여성	6.6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남성	6.5	-0.1	1.192	0.233
		여성	6.4			
	마을 발전 전망	남성	6.3	0.0	-0.190	0.849
		여성	6.3			
시·군 발전 전망	남성	6.4	0.0	-0.065	0.948	
	여성	6.4				
주관적 건강 인식	남성	6.5	-0.2	2.401	0.016	
	여성	6.3				
주관적 웰빙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남성	6.6	0.0	-0.521	0.603
		여성	6.6			
	어제의 행복 정도	남성	6.5	0.1	-0.935	0.350
		여성	6.6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남성	5.1	0.0	0.153	0.878
		여성	5.1			
어제의 우울 정도	남성	4.0	0.1	-0.599	0.549	
	여성	4.1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남성	6.3	-0.2	1.912	0.056	
	여성	6.2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남성	6.2	-0.2	2.011	0.044
		여성	6.0			
	이웃과의 관계	남성	6.5	-0.2	2.661	0.008
		여성	6.2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남성	6.1	-0.2	2.910	0.004
		여성	5.8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남성	5.2	-0.6	5.687	0.000
여성		4.6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도	남성	6.4	-0.1	1.303	0.193	
	여성	6.3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교류)	남성	5.0	-0.8	6.980	0.000	
여성	4.2					

주 1) 남성 n=1,262명, 여성 n=1,241명.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구분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14.060	0.000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448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99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448		50대	0.629
					70대 이상	0.629		60대	0.999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18.752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8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6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83		50대	0.855
					70대 이상	0.855		60대	0.967
	마을 발전 전망	7.830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30
					60대	0.030		50대	0.719
					70대 이상	0.004		70대 이상	0.80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4
					60대	0.719		50대	1.000
					70대 이상	1.000		60대	0.807
	시·군 발전 전망	12.79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5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5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53		50대	0.740	
				70대 이상	0.740		60대	0.951	
주관적 건강 인식	12.128	0.000	40대 이하	50대	0.321	60대	40대 이하	0.636	
				60대	0.636		50대	0.97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32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76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주관적 웰빙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18.850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820		50대	0.16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21	60대	40대 이하	0.166
					60대	0.820		50대	0.021			
					70대 이상	0.021		60대	0.166			
	어제의 행복감	10.822	0.000	40대 이하	50대	0.004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775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60			
				50대	40대 이하	0.004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775		50대	0.525			
					70대 이상	0.525		60대	0.960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39.980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00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875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6		50대	0.001			
					70대 이상	0.001		60대	0.875			
	어제의 우울 정도	12.333	0.000	40대 이하	50대	0.005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325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95				
50대				40대 이하	0.005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325		50대	0.577				
				70대 이상	0.577		60대	0.995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23.155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427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1.000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427		50대	0.472				
				70대 이상	0.472		60대	1.000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근심/걱정,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47.151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18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203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183		50대	0.001
					70대 이상	0.001		60대	0.203
	이웃과의 관계	68.16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44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9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441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9
	거주지역 에 대한 정책 신뢰도	42.964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63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503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634		50대	0.063
					70대 이상	0.063		60대	0.503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44.433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712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879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712		50대	0.997
					70대 이상	0.997		60대	0.879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26.461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892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976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892		50대	0.996	
				70대 이상	0.996		60대	0.976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교류)	15.815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28	
				70대 이상	0.222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222	
				60대	0.928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구분	세부분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전반적 만족도	현재 행복감	21.94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10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101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14.83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10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101
	마을 발전 전망	6.757	0.001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364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364
	시·군 발전 전망	7.588	0.001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9
					기타	0.00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9
					기타	0.623
				기타	농림어업	0.002
					비농림어업	0.623
주관적 건강 인식	17.25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3	
				기타	0.00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3	
				기타	0.700	
			기타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700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주관적 웰빙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36.10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3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739
	어제의 행복감	15.29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613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613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7.96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33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666
				기타	농림어업	0.033
					비농림어업	0.666
	어제의 우울 정도	0.016	0.984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984
					기타	0.999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984
					기타	0.994
				기타	농림어업	0.999
					비농림어업	0.994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30.93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00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를 묻는 부정적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해석.

3)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역 소속감	103.34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509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509
	이웃과의 관계	106.960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27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27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68.179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48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488
	지역사회 활동 참 여도	114.64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16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16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16.652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1.00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1.000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교류)	23.69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4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40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4대 부문별 만족도의 읍·면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읍	6.7	0.7	7.756	0.000
		면	5.9			
	의료 서비스 범위	읍	5.8	0.5	5.401	0.000
		면	5.3			
	의료 서비스 수준	읍	5.9	0.5	5.773	0.000
		면	5.4			
	분만의료서비스	읍	4.8	0.4	3.232	0.001
		면	4.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읍	5.5	0.4	4.414	0.000
		면	5.1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읍	5.8	0.3	3.832	0.000	
	면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읍	5.6	0.4	4.753	0.000	
	면	5.2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읍	5.7	0.4	4.143	0.000	
	면	5.4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읍	6.5	0.2	1.325	0.186	
	면	6.4				
교육·문화	공교육수준	읍	6.3	0.3	4.048	0.000
		면	6.0			
	방과 후 교육 기회	읍	6.1	0.5	6.244	0.000
		면	5.6			
	평생교육 기회	읍	5.6	0.2	1.845	0.065
		면	5.4			
	지역사회 연계 교육	읍	5.3	0.1	1.198	0.231
		면	5.2			
	문화·여가 시설	읍	5.7	0.5	5.707	0.000
		면	5.2			
문화·여가 프로그램	읍	5.6	0.4	4.032	0.000	
	면	5.2				
문화공동체 활동	읍	5.4	0.1	1.471	0.141	
	면	5.2				
지역 향토문화 기회	읍	5.8	0.1	1.501	0.133	
	면	5.6				

주 1) 읍 n=1,211명, 면 n=1,292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읍·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정주기반	대중교통	읍	5.8	0.4	3.545	0.000
		면	5.5			
	통신시설	읍	7.3	0.7	8.466	0.000
		면	6.6			
	생활 인프라	읍	7.1	0.7	8.290	0.000
		면	6.4			
	난방 인프라	읍	6.9	1.6	15.799	0.000
		면	5.3			
	난방비용	읍	5.7	0.8	8.007	0.000
		면	5.0			
	생활 서비스	읍	6.4	0.8	8.987	0.000
		면	5.6			
	식자재 구입	읍	6.8	0.9	9.710	0.000
		면	6.0			
	다양한 외식 장소	읍	6.4	0.8	8.964	0.000
		면	5.6			
주택 상태	읍	6.6	0.6	6.623	0.000	
	면	6.1				
교통안전	읍	6.4	0.2	2.459	0.014	
	면	6.2				
자연재해 안전	읍	6.7	0.3	3.763	0.000	
	면	6.4				
범죄 안전	읍	6.7	0.2	2.635	0.008	
	면	6.5				
적은 환경오염	읍	6.5	0.2	2.073	0.038	
	면	6.3				
정돈된 환경/경관	읍	6.7	0.1	1.520	0.129	
	면	6.6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읍	4.8	-0.1	-0.967	0.334
		면	4.9			
	일자리 충분성	읍	4.6	-0.2	-1.976	0.048
		면	4.8			
	충분한 소득	읍	5.2	-0.1	-0.668	0.504
		면	5.2			
	물가 수준 적절성	읍	5.2	-0.1	-0.610	0.542
		면	5.2			
	일자리 지원	읍	5.0	0.0	-0.470	0.638
		면	5.0			
	로컬푸드 판매	읍	5.6	0.0	-0.514	0.607
면		5.7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읍	5.2	-0.2	-1.819	0.069	
	면	5.4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읍	5.4	-0.1	-0.885	0.376	
	면	5.5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읍	5.3	-0.2	-2.173	0.030	
	면	5.5				

주 1) 읍 n=1,211명, 면 n=1,292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읍-면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4대 부문별 만족도의 성별 간 t-검정 결과〉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	남성	6.4	0.2	1.978	0.048
		여성	6.2			
	의료 서비스 범위	남성	5.7	0.3	3.537	0.000
		여성	5.4			
	의료 서비스 수준	남성	5.8	0.3	3.161	0.002
		여성	5.5			
	분만의료 서비스	남성	4.8	0.5	3.992	0.000
		여성	4.4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남성	5.5	0.5	4.791	0.000
		여성	5.1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남성	5.7	0.2	2.761	0.006	
	여성	5.5				
아동 양육보호 지원	남성	5.5	0.2	2.729	0.006	
	여성	5.3				
취약계층 복지 지원	남성	5.7	0.2	2.701	0.007	
	여성	5.4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만)	남성	6.5	0.2	1.497	0.135	
	여성	6.3				
교육·문화	공교육 수준	남성	6.2	0.1	1.023	0.307
		여성	6.1			
	방과 후 교육 기회	남성	5.8	0.0	-0.118	0.906
		여성	5.8			
	평생교육 기회	남성	5.5	0.1	0.578	0.563
		여성	5.4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남성	5.3	0.2	1.755	0.079
		여성	5.1			
	문화·여가 시설	남성	5.5	0.2	1.960	0.050
		여성	5.4			
문화·여가 프로그램	남성	5.5	0.2	2.421	0.016	
	여성	5.3				
문화 공동체 활동	남성	5.5	0.3	3.720	0.000	
	여성	5.1				
지역 향토문화 기회	남성	5.8	0.2	2.036	0.042	
	여성	5.6				

주 1) 남성 n=1,262명, 여성 n=1,241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구분	세부문항	집단	평균	차이 (농어촌-도시)	t	p-value
정주기반	대중교통	남성	5.8	0.2	2.157	0.031
		여성	5.6			
	통신시설	남성	6.9	0.0	0.272	0.786
		여성	6.9			
	생활 인프라	남성	6.7	0.0	0.499	0.618
		여성	6.7			
	난방 인프라	남성	6.0	-0.1	-0.747	0.455
		여성	6.1			
	난방비용	남성	5.4	0.1	0.872	0.383
		여성	5.3			
	생활 서비스	남성	6.0	0.1	1.190	0.234
		여성	5.9			
	식자재 구입	남성	6.4	0.1	1.317	0.188
		여성	6.3			
	다양한 외식 장소	남성	6.0	0.0	-0.261	0.794
		여성	6.0			
	주택 상태	남성	6.3	0.0	-0.303	0.762
		여성	6.3			
교통안전	남성	6.3	0.0	0.248	0.804	
	여성	6.3				
자연재해 안전	남성	6.6	0.0	0.430	0.667	
	여성	6.5				
범죄 안전	남성	6.6	0.0	0.252	0.801	
	여성	6.6				
적은 환경오염	남성	6.5	0.2	2.152	0.032	
	여성	6.3				
정돈된 환경/경관	남성	6.7	0.1	2490.131	0.321	
	여성	6.6				
경제 일자리	일자리 용이성	남성	5.0	0.4	4.216	0.000
		여성	4.6			
	일자리 충분성	남성	4.9	0.4	4.272	0.000
		여성	4.5			
	충분한 소득	남성	5.4	0.3	3.114	0.002
		여성	5.1			
	물가수준 적절성	남성	5.3	0.3	3.014	0.003
		여성	5.0			
	일자리 지원	남성	5.2	0.3	3.586	0.000
		여성	4.8			
	로컬푸드 판매	남성	5.8	0.2	1.951	0.051
여성		5.6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남성	5.5	0.4	3.974	0.000	
	여성	5.1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남성	5.5	0.2	2.252	0.024	
	여성	5.3				
여성농업인 경제활동 지원(농촌만)	남성	5.5	0.3	3.122	0.002	
	여성	5.3				

주 1) 남성 n=1,262명, 여성 n=1,241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성별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의료 서비스 접근성	9.602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18
				60대	0.018		50대	0.804
				70대 이상	0.488		70대 이상	0.003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488
				60대	0.804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3
의료 서비스 범위	8.754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2
				60대	0.002		50대	0.921
				70대 이상	0.739		70대 이상	0.225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739
				60대	0.921		50대	0.059
				70대 이상	0.059		60대	0.225
의료 서비스 수준	4.627	0.003	40대 이하	50대	0.006	60대	40대 이하	0.041
				60대	0.041		50대	0.964
				70대 이상	0.892		70대 이상	0.499
			50대	40대 이하	0.006	70대 이상	40대 이하	0.892
				60대	0.964		50대	0.250
				70대 이상	0.250		60대	0.499
분만의료 서비스	6.07	0.000	40대 이하	50대	0.196	60대	40대 이하	0.523
				60대	0.523		50대	0.022
				70대 이상	0.026		70대 이상	0.481
			50대	40대 이하	0.196	70대 이상	40대 이하	0.026
				60대	0.022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48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847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5
				60대	0.005		50대	0.963
				70대 이상	0.290		70대 이상	0.755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290
				60대	0.963		50대	0.475
				70대 이상	0.475		60대	0.755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13.232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761
				70대 이상	0.018		70대 이상	0.871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18
				60대	0.761		50대	0.347
				70대 이상	0.347		60대	0.871
아동 양육보호 지원	11.231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15
				60대	0.015		50대	0.175
				70대 이상	0.964		70대 이상	0.23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964
				60대	0.175		50대	0.001
				70대 이상	0.001		60대	0.237
취약계층 복지 지원	15.005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726
				70대 이상	0.011		70대 이상	0.834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11
				60대	0.726		50대	0.278
				70대 이상	0.278		60대	0.834
농어작업 안전성 (농어업인만)	3.533	0.014	40대 이하	50대	0.202	60대	40대 이하	0.013
				60대	0.013		50대	0.812
				70대 이상	0.818		70대 이상	0.140
			50대	40대 이하	0.202	70대 이상	40대 이하	0.818
				60대	0.812		50대	0.673
				70대 이상	0.673		60대	0.140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교육 수준	6.206	0.000	40대 이하	50대	0.010	60대	40대 이하	0.027
				60대	0.027		50대	0.997
				70대 이상	0.784		70대 이상	0.016
			50대	40대 이하	0.010	70대 이상	40대 이하	0.784
				60대	0.997		50대	0.007
				70대 이상	0.007		60대	0.016
방과 후 교육 기회	6.231	0.000	40대 이하	50대	0.019	60대	40대 이하	0.571
				60대	0.571		50대	0.532
				70대 이상	0.153		70대 이상	0.024
			50대	40대 이하	0.019	70대 이상	40대 이하	0.153
				60대	0.532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24
평생교육 기회	4.79	0.002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151
				60대	0.151		50대	0.588
				70대 이상	0.702		70대 이상	0.909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702
				60대	0.588		50대	0.269
				70대 이상	0.269		60대	0.909
지역사회 연계 교육	3.615	0.013	40대 이하	50대	0.008	60대	40대 이하	0.291
				60대	0.291		50대	0.645
				70대 이상	0.758		70대 이상	0.962
			50대	40대 이하	0.008	70대 이상	40대 이하	0.758
				60대	0.645		50대	0.410
				70대 이상	0.410		60대	0.962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문화·여가 시설	7.184	0.000	40대 이하	50대	0.007	60대	40대 이하	0.040
				60대	0.040		50대	0.976
				70대 이상	0.447		70대 이상	0.005
			50대	40대 이하	0.007	70대 이상	40대 이하	0.447
				60대	0.976		50대	0.001
				70대 이상	0.001		60대	0.005
문화·여가 프로그램	3.784	0.010	40대 이하	50대	0.008	60대	40대 이하	0.180
				60대	0.180		50대	0.778
				70대 이상	0.666		70대 이상	0.946
			50대	40대 이하	0.008	70대 이상	40대 이하	0.666
				60대	0.778		50대	0.492
				70대 이상	0.492		60대	0.946
문화 공동체 활동	7.387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16
				60대	0.016		50대	0.679
				70대 이상	0.144		70대 이상	0.979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144
				60대	0.679		50대	0.496
				70대 이상	0.496		60대	0.979
지역 향토문화 기회	9.045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328
				60대	0.328		50대	0.125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124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125		50대	0.994
				70대 이상	0.994		60대	0.124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대중교통	16.502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6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726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64		50대	0.923
				70대 이상	0.923		60대	0.726
통신시설	11.094	0.000	40대 이하	50대	0.047	60대	40대 이하	0.493
				60대	0.493		50대	0.76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04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766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생활 인프라	7.511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62
				60대	0.062		50대	0.297
				70대 이상	0.475		70대 이상	0.918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475
				60대	0.297		50대	0.116
				70대 이상	0.116		60대	0.918
난방 인프라	31.292	0.000	40대 이하	50대	0.988	60대	40대 이하	0.025
				60대	0.025		50대	0.034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0
			50대	40대 이하	0.988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34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00
난방비용	10.892	0.000	40대 이하	50대	1.000	60대	40대 이하	0.027
				60대	0.027		50대	0.08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71
			50대	40대 이하	1.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080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71
생활 서비스	4.625	0.003	40대 이하	50대	0.013	60대	40대 이하	0.821
				60대	0.821		50대	0.267
				70대 이상	0.625		70대 이상	0.310
			50대	40대 이하	0.013	70대 이상	40대 이하	0.625
				60대	0.267		50대	0.004
				70대 이상	0.004		60대	0.310
식자재 구입	7.549	0.000	40대 이하	50대	0.100	60대	40대 이하	0.971
				60대	0.971		50대	0.093
				70대 이상	0.005		70대 이상	0.045
			50대	40대 이하	0.1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5
				60대	0.093		50대	0.000
				70대 이상	0.000		60대	0.045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다양한 외식 장소	6.33	0.000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720
				60대	0.720		50대	0.102
				70대 이상	0.742		70대 이상	0.324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742
				60대	0.102		50대	0.001
				70대 이상	0.001		60대	0.324
주택상태	4.207	0.006	40대 이하	50대	0.002	60대	40대 이하	0.689
				60대	0.689		50대	0.175
				70대 이상	0.912		70대 이상	0.994
			50대	40대 이하	0.002	70대 이상	40대 이하	0.912
				60대	0.175		50대	0.155
				70대 이상	0.155		60대	0.994
교통안전	12.459	0.000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006
				60대	0.006		50대	0.993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85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93		50대	0.135
				70대 이상	0.135		60대	0.085
자연재해 안전	14.58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982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576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82		50대	0.770
				70대 이상	0.770		60대	0.576
범죄 안전	9.794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5
				60대	0.005		50대	0.966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562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66		50대	0.805
				70대 이상	0.805		60대	0.562
적은 환경오염	17.359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1.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250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1.000		50대	0.278
				70대 이상	0.278		60대	0.250
정돈된 환경/경관	16.11	0.000	40대 이하	50대	0.000	60대	40대 이하	0.019
				60대	0.019		50대	0.461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07
			50대	40대 이하	0.000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461		50대	0.205
				70대 이상	0.205		60대	0.007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의 연령대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일자리 용이성	3.501	0.015	40대 이하	50대	0.010	60대	40대 이하	0.411
				60대	0.411		50대	0.567
				70대 이상	0.371		70대 이상	0.995
			50대	40대 이하	0.010	70대 이상	40대 이하	0.371
				60대	0.567		50대	0.792
				70대 이상	0.792		60대	0.995
일자리 충분성	9.274	0.000	40대 이하	50대	0.009	60대	40대 이하	0.022
				60대	0.022		50대	0.998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188
			50대	40대 이하	0.009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98		50대	0.242
				70대 이상	0.242		60대	0.188
충분한 소득	2.43	0.063	40대 이하	50대	0.597	60대	40대 이하	0.960
				60대	0.960		50대	0.924
				70대 이상	0.044		70대 이상	0.217
			50대	40대 이하	0.59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44
				60대	0.924		50대	0.502
				70대 이상	0.502		60대	0.217
물가 수준 적절성	3.011	0.029	40대 이하	50대	0.135	60대	40대 이하	0.616
				60대	0.616		50대	0.869
				70대 이상	0.046		70대 이상	0.525
			50대	40대 이하	0.135	70대 이상	40대 이하	0.046
				60대	0.869		50대	0.901
				70대 이상	0.901		60대	0.525
일자리 지원	5.204	0.001	40대 이하	50대	0.021	60대	40대 이하	0.190
				60대	0.190		50대	0.895
				70대 이상	0.005		70대 이상	0.501
			50대	40대 이하	0.02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5
				60대	0.895		50대	0.861
				70대 이상	0.861		60대	0.501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 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로컬푸드 판매	6.659	0.000	40대 이하	50대	0.196	60대	40대 이하	0.561
				60대	0.561		50대	0.949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21
			50대	40대 이하	0.196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49		50대	0.071
				70대 이상	0.071		60대	0.021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13.794	0.000	40대 이하	50대	0.007	60대	40대 이하	0.006
				60대	0.006		50대	1.00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21
			50대	40대 이하	0.007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1.000		50대	0.014
				70대 이상	0.014		60대	0.021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10.728	0.000	40대 이하	50대	0.011	60대	40대 이하	0.051
				60대	0.051		50대	0.980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029
			50대	40대 이하	0.01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980		50대	0.067
				70대 이상	0.067		60대	0.029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17.376	0.000	40대 이하	50대	0.001	60대	40대 이하	0.000
				60대	0.000		50대	0.629
				70대 이상	0.000		70대 이상	0.475
			50대	40대 이하	0.001	70대 이상	40대 이하	0.000
				60대	0.629		50대	0.055
				70대 이상	0.055		60대	0.475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의료 서비스 접근성	0.384	0.681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706
				기타	0.756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706
				기타	0.999
			기타	농림어업	0.756
				비농림어업	0.999
의료 서비스 범위	7.523	0.001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1
				기타	0.004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1
				기타	0.964
			기타	농림어업	0.004
				비농림어업	0.964
의료 서비스 수준	6.373	0.002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1
				기타	0.049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1
				기타	0.802
			기타	농림어업	0.049
				비농림어업	0.802
분만의료 서비스	2.878	0.056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303
				기타	0.046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303
				기타	0.447
			기타	농림어업	0.046
				비농림어업	0.447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10.52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58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588

주 1) 40대 이하 n=1,115명, 50대 n=542명, 60대 n=502명, 70대 이상 n=344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10.79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4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84
			기타	농림어업	0.004
				비농림어업	0.784
아동 양육보호 지원	9.27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3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98
			기타	농림어업	0.003
				비농림어업	0.998
취약계층 복지 지원	12.65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2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2
				기타	0.083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83
농어작업 안전 (농어업인만)	3.276	0.038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85
				기타	0.255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85
				기타	0.961
			기타	농림어업	0.255
				비농림어업	0.961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교육·문화 부문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공교육수준	5.025	0.007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10
				기타	0.03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10
				기타	0.994
			기타	농림어업	0.030
				비농림어업	0.994
방과 후 교육 기회	0.067	0.935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982
				기타	0.98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982
				기타	0.929
			기타	농림어업	0.980
				비농림어업	0.929
평생교육 기회	13.23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77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77
지역사회 연계 교육	25.51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51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518
문화·여가 시설	1.545	0.214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374
				기타	0.224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374
				기타	0.840
			기타	농림어업	0.224
				비농림어업	0.840
문화·여가 프로그램	9.70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10
			기타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910
문화 공동체 활동	22.01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737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737
지역 향토문화 기회	14.529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7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78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정주기반 부문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대중교통	8.9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1
				기타	0.00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1
				기타	0.903
			기타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903
통신시설	13.29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67
			기타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867
생활 인프라	4.878	0.008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5
				기타	0.23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5
				기타	0.537
			기타	농림어업	0.232
				비농림어업	0.537
난방 인프라	29.3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486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486
난방비용	4.19	0.015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14
				기타	0.715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14
				기타	0.209
			기타	농림어업	0.715
				비농림어업	0.209
생활 서비스	0.226	0.798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799
				기타	0.87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799
				기타	0.999
			기타	농림어업	0.871
				비농림어업	0.999
식자재 구입	4.429	0.012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15
				기타	0.055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15
				기타	1.000
			기타	농림어업	0.055
				비농림어업	1.000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다양한 외식장소	1.185	0.306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279
				기타	0.83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279
				기타	0.732
			기타	농림어업	0.831
				비농림어업	0.732
주택 상태	0.169	0.844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834
				기타	0.928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834
				기타	0.992
			기타	농림어업	0.928
				비농림어업	0.992
교통안전	6.461	0.002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2
				기타	0.03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2
				기타	0.905
			기타	농림어업	0.031
				비농림어업	0.905
자연재해 안전	4.678	0.009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148
				기타	0.007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148
				기타	0.266
			기타	농림어업	0.007
				비농림어업	0.266
범죄안전	1.935	0.145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506
				기타	0.12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506
				기타	0.518
			기타	농림어업	0.122
				비농림어업	0.518
적은 환경오염	5.813	0.003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80
				기타	0.002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80
				기타	0.223
			기타	농림어업	0.002
				비농림어업	0.223
정돈된 환경·경관	7.89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6
				기타	0.001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6
				기타	0.466
			기타	농림어업	0.001
				비농림어업	0.466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경제·일자리 부문 만족도의 직업군 간 ANOVA 및 사후검정 결과〉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일자리 용이성	48.11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053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053
일자리 충분성	81.397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173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173
충분한 소득	37.451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835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835
물가 수준 적절성	51.563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47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471
일자리 지원	59.904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291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291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계속)

세부문항	ANOVA		사후검정		
	F	p-value	기준집단	비교집단	p-value
로컬푸드 판매	45.066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4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40
관광자원 및 산업 활성화	52.908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94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94
다문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47.836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40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40
여성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 (농촌만)	79.985	0.000	농림어업	비농림어업	0.000
				기타	0.000
			비농림어업	농림어업	0.000
				기타	0.918
			기타	농림어업	0.000
				비농림어업	0.918

주 1) 농림어업 n=798명, 비농림어업 n=1,136명, 주부, 학생, 퇴직 기타 n=569명.

2) p-value가 0.05 이하인 경우 기준집단과 비교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참고문헌

- 김민석. (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9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석, 김태완. (20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완.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1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민경찬, 김민석, 유서영.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2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20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8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OECD. (2015).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 법제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www.index.go.kr/unify/main.do>